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과
종교 유산화 과정

-대한제국 의친왕비 유물 중심으로-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ivities and Religious
Heritage-Making by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 Focusing on the Relics of the Consort of Imperial Prince
Uichin of the Korean Empire

지도교수 최 연 주

2025년 8월

동의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유 상 순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과

종교 유산화 과정

-대한제국 의친왕비 유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연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6월

동의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유상순

유상순의 문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주 심 김 형 열 (인)

위 원 신 영 지 (인)

위 원 최 연 주 (인)

2025년 6월

동의대학교대학원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과 종교 유산화 과정

-대한제국 의친왕비 유물 중심으로-

유 상 순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초 록

이 논문은 대한제국 의친왕비 김덕수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한 황실 유물이 단순한 역사 유산을 넘어 신앙적 의미를 지닌 종교유산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종교문화유산 연구가 주로 제도적 보존과 물리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논문은 가톨릭 여성 수도회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신앙적 실천과 해석을 통해 유물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공동체의 정체성 안에 통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의친왕비 유물의 수집과 보존, 전시가 단순한 박물관 활동을 넘어 수도회의 고유한 사명, 즉 순교자 현양과 민족문화 계승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

본 연구는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유물 기증의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 의친왕비의 생애 말기를 함께한 정환희 여사의 구술자료를 핵심 1차 자료로 채택하고, 수녀회 내부의 공문, 회고록, 박물관 기록 및 신문 기사 등 다양한 보조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물의 기

증 동기, 수용 과정, 전시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문화유산이 수도공동체 내부의 신앙적 기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의친왕비의 유물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내에서 단순한 역사 유물의 차원을 넘어, 신앙과 공동체 정신의 상징으로 의미화되었으며, 전시와 교육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으로 공공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수도회의 신앙적 해석과 실천을 통해 유산의 종교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 내 천주교 여성 수도회의 문화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문화유산의 형성과 전환 과정에 있어 종교기관의 능동적 역할과 해석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여성 수도공동체가 문화유산 보존의 주체로서 수행할 수 있는 신앙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3. 선행연구의 검토	7
II. 대한제국 의친왕비의 생애와 기증 유물의 의미	10
1. 대한제국 황실의 변화	10
2. 대한제국 의친왕비의 생애와 신앙생활	13
3. 대한제국 의친왕비의 기증 유물 현황과 의미	22
III.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인식과 보존 활동	33
1.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설립과 문화유산 인식	34
2.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	41
3. 구술자료로 본 의친왕비 유물의 종교 유산화 과정	51
IV. 결론	71
참고문헌	74
부록(정환희 여사 구술자료 전사본)	80
Abstract	94

표 목차

<표 1> 대한제국 황실 가계도	12
<표 2>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유물 현황	22
<표 3> 의친왕비 기증 유물 현황	23
<표 4>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개최한 전시	42
<표 5> 조선 왕실 유물을 활용한 특별전시와 도록	49
<표 6>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전시 도록 현황	49
<표 7> 의친왕비 가계도	56
<표 8>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2012년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언론보도	70

그림 목차

<그림 1> 1955.08.21. <경향신문> 의친왕 장례	20
<그림 2> 1964.01.15. <경향신문> 의친왕비 장례	20
<그림 3> 『의왕영왕책봉의궤』	25
<그림 4> 『추봉책봉의궤』	25
<그림 5> 의왕 원유관	28
<그림 6> 의왕 원유관의 금장식, 화관, 술	28
<그림 7> 의왕 단령	29
<그림 8> 익선관	29
<그림 9> 의친왕비 조바위	30
<그림 10> 어어머리	30
<그림 11> 새앙머리	30

<그림 12> 의친왕비의 지팡이	31
<그림 13> 세례 사진 속	31
<그림 14> 1967년 전시	31
<그림 15>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창설	34
<그림 16> 「복자회 창설 이념」 창설자 방유룡 사제 수기본	37
<그림 17> 1954년 10월 <한국가톨릭 사료 전시회>입구 전경과 전시실	41
<그림 18> 1976년 12월 기념관 부지조성	45
<그림 19> 기념관 투시도(김성곤 교수 작)	45
<그림 20> 기념관 개관 당선 전시실	46
<그림 21> 1982년 9월 23일 <조선일보> 7면	46
<그림 22> 1988년 8월 25일 <조선일보> 7면, 의왕원유관 외 다수 전시대여	47
<그림 23> 의친왕비 세례기념 사진	53
<그림 24> 이해경 여사와 김종순 교수(2009년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방문)	53
<그림 25> 2013년 김종옥 자택에서 정환희 여사 인터뷰하는 모습	55
<그림 26> 의친왕비의 80세 생일날 모인 친척들	56
<그림 27> 1957년 3월 제1회 외부회 착복식	61
<그림 28>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총원에 의친왕비 방문	63
<그림 29> 의친왕의 6녀 이희자 여사 방문	65
<그림 30> 1955년 8월 18일 <경향신문> 1면	69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1946년 4월 21일에 한국인 사제 방유룡(안드레아)에 의해 수도회로 창립된 이후, ‘순교자 현양’과 ‘민족문화 계승’을 특수한 사명으로 실천해온 가톨릭 여성 수도공동체다. 본 수녀회는 단순한 사목 지원이나 교육 활동을 넘어, 신앙과 역사,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힘써 왔다. 전통 유물과 신앙 유산의 수집과 보존, 전시는 단순한 소장 활동을 넘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는 신앙 행위로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명의 구체적 실현은 1982년 9월 개관한 오륜대 한국순교자기념관(현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으로 잘 드러난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신앙 공동체 내부의 기억을 구성하고 유산의 의미를 신앙적 맥락 안에서 재해석하며, 그 전승을 통해 시대적 책임과 공동체 정체성을 구현하는 종교적 실천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인물 중 한 사람인 의친왕비 김덕수가 복자수녀회에 기증한 황실 유물, 즉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한제국 황실 유물은 가톨릭 수도공동체의 해석과 실천을 통해 종교적 유산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이 유물의 기증 및 수용 경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초기 유물 수집 활동 당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기증자인 의친왕비가 유물의 출처를 비밀로 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2013년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정환희 여사의 인터뷰 영상이 구술자료로 현재 박물관 기록물로 보존되어 있다. 정환희 여사는 의친왕비를 가까이에서 보필한 인물이며 기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다. 이 구술자료를 비롯해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내부의 공문서, 공동창설자 수녀의 회고록, 전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유물 기증의 전말은 부분적으로나마 복원될 수 있다. 이 탐색과정은 단지 기증 행위 자체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수녀회에서 유물을 소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장 행위가 복자수녀회의 고유한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한국천주교회는 2009년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을 통해 ‘교회의 문화유산’을 “하느님과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실천하며 선포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신앙관이 담긴 문화의 산물”¹⁾로 정의하였다. 문화유산은 교회론적 토대 위에서 신학적·영성적으로 형성되며, 교회 안에서는 ‘은총의 표징’이자 ‘제의적 성격’을 지닌 신심의 대상으로서, 성당 건축물, 역사적 유물, 예술품 등을 포함한다. 가톨릭 종교문화유산은 단순한 물리적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기억과 영적 가치가 담긴 상징적 자산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2023년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국제 기준의 포괄적 개념을 채택한 것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 변화는 지역 공동체의 원천자산이자 미래유산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을 통해, 유산이 지닌 계승과 전승의 의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²⁾, 이는 가톨릭교회가 인식해온 ‘신앙의 유산’ 개념과도 깊은 맥락을 공유한다.

결국 종교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후손에게 전해져야 할 신앙의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유산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의미되고 문화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될 것인지 중요한 연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제국 의친왕비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한 유물이 ‘교회의 문화유산’으로서 어떠한 종교유산적 가치를 획득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 어떻게 대중과 공유하며 공감을 형성하는 실제 사례로 이어졌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문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제국 의친왕비 유물은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되었으며, 그 소장 경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9. 5쪽.

2) 국가유산청 <https://www.khs.go.kr>: “‘문화재’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유산’으로 명칭변경” <한겨레> 2024년 5월 15일.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40663 (2025.04.20.검색)

둘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창설 이래 문화유산을 어떻게 수집·보존·전시해 왔으며, 이러한 실천은 수도공동체의 정체성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왔는가?

셋째, 의친왕비 유물은 복자수녀회의 신앙적 해석을 통해 어떤 종교적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그것이 종교유산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배경과 해석의 틀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려 한다. 의친왕비의 기증 유물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복자수녀회를 통해 신앙적 의미를 부여받고 종교유산으로 전환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한 유물의 보존과 전시 차원을 넘어, 복자수녀회의 고유한 사명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유물을 소장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종교 유산적 의미의 형성과 실천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종교 기관의 문화유산 인식과 실천 양상을 조망하고, 더 나아가 종교문화유산의 공공화 과정 속에서 한국천주교 여성 수도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의친왕비 김덕수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한 대한제국 황실 유물이 어떻게 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 안에서 종교유산으로 전환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유물의 기증 경위 및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유물 기증의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나 행정기록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는 구술사 방법론과 역사적 연구방법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환희 여사의 구술자료를 1차 사료로 채택하였다. 정환희 여사는 의친왕비의 최측근으로서 약 20여년간 곁에서 생활하며, 유물 기증 당시 현장에 동석하고 그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그녀의 증언은 유물의 출처, 관리, 기증 의사 결정 배경, 수녀회와의 관계 등 주요 정황을 드러내는 결정적 자료로 평가되며, 단순한 회고 차원을 넘어 유물의 진정성과 전승 맥락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구술사 연구는 특정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기억과 해석을 통해 문헌으로 남아 있지 않은 역

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방법론으로, 구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사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에 정환희 여사의 인터뷰 영상을 분석해 구술자료를 보완하였다. 이 자료는 인터뷰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총 1시간 5분 50초 분량)로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사업으로 문화재청(현 국사유산청)에 제출하기 위해 발췌된 2쪽 분량의 요약본만 인터뷰 기본 정보 기록문과 함께 박물관 발신 공문철에 첨부되어 보관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영상을 전사(轉寫, transcription)하여 총 18쪽 분량의 문서로 정리하였다. 이 전사본을 바탕으로 인터뷰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구술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역사 사건과 관련된 당대 신문 기사 및 수녀회의 내부 문서와의 교차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기억의 주관성과 한계를 보완하고, 구술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보조자료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내부의 문서 자료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관련 공문, 수녀회 공동창설자 수녀의 회고록, 기록사진, 수녀회 소식지, 순교자기념관 전시도록 등을 활용하였다. 이들 문서는 공식 출판물이 아닌 내부적·비공식적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유물의 보관과 이전, 박물관 설립과 문화유산 보존 활동, 기증유물의 종교 유산화 과정의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으로써, 수집과 분류 과정을 거쳐 유물 관련 문서들을 선별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구술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료 목록을 체계화하였다. 다음은 기증 유물 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들의 기록물을 선별하여 목록화한 것이다.

■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1956년 4월 21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중요기록집』’ 95~97쪽에 원문이 복사 수록되어 있으며, 원본은 수녀회 자료실에 보존되어 있고, 박물관에는 복사본이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는 수녀회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창설자 홍은순(라우렌시오) 수녀가 작성한 축사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창설 당시의 수녀회 상황과 주요 활동을 회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본 기록은 수녀회가 왕실 문화 및 유물과 접촉하게 된 초기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 “복자회 창설 이념”. 1977년 12월 25일.

이 문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각 수도회가 복음과 창설자 정신에

따라 쇄신하고 영적 부분을 강화하여 회헌을 개정하도록 권고함³⁾에 따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창설자인 방유룡(안드레아) 사제가 직접 복자회 창설 이념을 정리하여 작성한 수기본(手記本)이다.

■ “복자 수녀회 회사 초안(福者 修女會 會史 草案)”, 1996년 2월.

이 자료는 수녀회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홍은순 수녀가 작성한 수녀회 역사 정리 초안으로, 수녀회의 고유한 정신과 사명을 기술한 기록물이며 전체 68쪽 분량이다. 이것은 수녀회가 순교자 현양과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사명에 따라 유물 수집 활동을 전개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 판단된다.

■ “창립 50주년 ‘오륜대 분원 역사’ 정리본(수기)”, 1996년.

이 기록물은 홍은순 수녀가 1969년 6월 13일부터 1996년 4월 21일까지의 부산 오륜대 분원 주요 역사를 개인 기록을 바탕으로 일지 형식으로 재편집한 문서로, 총 28쪽 분량이며 수기로 작성되었다. 본 자료 19쪽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된 유물 16점(1988년)과 우르슬라(이복홍) 여사를 통해 궁중 유물을 선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창설 50주년 본사 자료 초안(厚謝후사)”, 1974.3.15.-1996.4.21.

이 자료는 2002년 9월 8일에 박물관 자료실 담당 여은자(젼마) 수녀가 홍은순 수녀의 ‘오륜대 분원 역사’ 수기본을 전산화하여 옮겨놓은 것이다. 홍은순 수녀의 수기본을 옮기면서 날짜 표기 옆에 제목을 임의로 첨부하고 설명도 덧붙였다. 본 자료 11쪽에 88년 7월 15일 ‘궁중 유물 수집 기증받은 경위’라는 제목을 첨부하고 “외부회원 우슬라 할머니는 의친왕비이신 김마리아의 대모였으며 가회동 성당에서 영세 받았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중요기록집』”, 1946.3.25.-1999.12.24.

이 기록물은 본 수녀회의 주요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여러 사람의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1946년 3월 25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록은 동일한 인물에 의해 작성되었다. 총 319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 분리되어 있던 수녀회 일지를 통합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편집된 기록집이다.

■ 「이게 다 기적이예요」 윤병현 수녀와 홍은순 수녀 구술자료

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회헌』, 서문: 성 바오로 6세,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 II-제1부 12항(회헌개정), 1966.

해당 자료는 본 수녀회의 소식지 『순교의 맥』 1993년 여름호에 실린 특집 기획 기사로, 순교자기념관을 소개하기 위해 수녀회 공동 창설자인 윤병현 수녀와 홍은순 수녀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본 수녀회의 유물 수집 시기와 기념관 건립 과정에 얽힌 주요 일화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기념관 설립자인 두 수녀의 신앙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展示 圖錄』 1982년 9월 20일 개관 기념

이 자료집은 1982년 9월 기념관 개관을 기념하여 제작·배포된 전시 도록으로, 개관 당시 기념관의 전시 유물 및 소장 유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집필은 순교자기념관 초대 관장인 김옥희(안나) 수녀가 담당하였으며, 총 6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외부회(현 재속복자회)의 ‘지원서’

의친왕비의 천주교 개종에 영향을 미치고 수녀회와의 관계 형성에 매개 역할을 한 인물인 이복흥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역사적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작성된 ‘지원서’ 원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수녀회 내부 기록과 박물관 공문 및 전시 도록, 신문 기사 등 이질적인 성격의 사료들을 상호 대조하고, 각 사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물 기증 경위에 대한 실상을 최대한 실증적으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유물의 수용과 해석이 수녀회의 고유한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과 그 과정 안에 깃든 종교 유산화 과정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친왕비의 생애와 유물 기증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둘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설립 과정과 문화유산 인식을 살펴본다. 셋째, 의친왕비 유물이 수녀회 내에서 어떻게 보존·전시·교육 자원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분석하며, 넷째, 구술자료를 포함한 1차 사료를 토대로 유물의 종교 유산화 과정과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의 검토

한국천주교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제와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연구는 천주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천주교 건축물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천주교 성당과 공소 등 건축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다. 지역별 건축물의 특성과 역사성을 고찰하고 그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김문수(2009)는 천주교 건축유산의 수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구조적 보존 원칙을 분석하였으며, 장성민(2019)은 인천 답동 성당과 강화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보존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보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응호(2003)는 옥천성당의 건축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복원기준을 제안함으로써, 복원 작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수진(2014)은 대구·경북 지역의 성당 건축물에 내재된 형태적 특성을 조명하며, 지역 건축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김정신(2019)은 풍수원 성당의 건축적 특징과 함께 종교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그 중요성은 단순한 건축유산을 넘어서는 신앙 공동체의 상징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하상균(2011)은 근대 성당 건축의 외형적 특성과 공간 구조를 통해 교회 건축이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김정신(2006, 2010), 강길선·임영배(1988), 신경희·김낙춘(2002) 등은 한국 성당건축의 변천사와 지역 교구별 공간구성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방안에 관한 주제다. 기록물, 미술품, 사료 등의 동산문화유산을 포괄하는 접근이 특징이다. 정윤정(2018)은 교회 문화유산의 확장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분산적 보존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신지철(2023)은 천주교 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을 통해 현행 보존 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고, 최규리·이상욱(2023)은 천주교 동산문화유산의 분류기준 정립과 장기적 보존 전략을 수립하였다. 김정신(2013)은 총체적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근대 동산문화재의 유형을 정리하고, 천주교 문화유산의 특수성과 이에 적합한 관리 기준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록유산에 관한 연구로는 김효진(2022)이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

정리체계를 분석하며, 수도권 기록물의 구조화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민정(2018)은 천주교 역사기록물의 정리와 기술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김성태(2018)는 교회 자료 분류체계를 제안하여 자료의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호(2010)와 이영춘(2010, 2016)은 교구 문화유산 목록화 및 보존 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고, 정수경(2006, 2010)은 교회 미술품의 기록화 및 목록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다루었다. 차기진(2016)은 천주교 사료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아카이브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천주교 문화유산이 단순한 물적 자산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기억 자산이라는 점에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문화유적지 개발 및 활용 연구다. 이 연구는 천주교 문화유적지의 개발 및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다. 종교유산의 사회적·관광적 가치 확대와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민휘(2020)는 전주지역 종교문화유산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제시하였고, 임송(2019)은 서울국제순례길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향을 분석하였다. 김경혜(2015)는 서울의 천주교 유적이 갖는 세계유산적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이승우·강민희(2023)는 안동교구의 사례를 통해 종교문화유산이 공동체 정체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김성태(2023), 김정찬(2019), 허소정(2022) 등은 내포지역의 천주교 유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재 방향과 지역 자원화 전략을 제안하였고, 유승광(2019), 유은선(2024)은 종교문화유산이 관광 콘텐츠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특히, 초남이성지 관련 연구들(남해경, 안소린·권다경, 서순례, 2022)은 성지 정비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유해 복원, 공동체 기억의 구술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신앙공간의 현대적 계승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천주교 유적지가 단지 과거의 신앙 장소를 넘어서 현재와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넷째, 천주교 박물관 건립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천주교 박물관의 설립과 전시 활성화 전략에 관한 주제다. 종교유산의 교육적·사회적 기능 확대에 집중한다. 최영면(2020)은 천호성지 내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분석하고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정립을 제안하였으며, 송란희(2013)는 종교박물관이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선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지철(2018)은 교구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상의 유용성을 분석하였고, 유지선

(2018)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김영호(2019)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전시 전략을 통해 종교와 역사를 통합하는 새로운 공간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송영찬은 수도권 부지를 활용한 박물관 계획을 통해 공간복합성과 종교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김정수(2008), 윤태석(2010), 서종태(2006), 황규진(2023) 등의 연구는 박물관 전시의 방향성, 영상매체의 활용, 공공 역사와 종교역사 간의 창의적 긴장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종교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천주교회의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보존 전략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개별 종교기관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이나 특정 유물의 종교유산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이 가톨릭 여성 수도회를 통해 수용되고, 그 안에서 신앙적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 공동체의 기억 속에 종교유산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 사례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보유한 의친왕비 기증 유물을 중심으로 그 종교유산화의 실제 과정을 분석했다. 이 유물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넘어, 가톨릭적 해석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 통합되며 새로운 종교적 의미를 획득한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수행해 온 고유한 사명 곧, 순교정신의 계승과 복음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도직 활동이 해당 유물의 수용과 재해석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 또는 가시화되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의친왕비 기증 유물이 박물관을 통해 신앙적·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고 대중에게 소개되는 과정을 주목했다. 이를 통해 종교 유산의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공동체 내부의 기억을 넘어, 사회와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문화유산의 공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종교 기관이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유산을 통해 신앙 공동체 내부의 신념과 기억,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학문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I. 대한제국 의친왕비의 생애와 기증 유물의 의미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보존하고 있는 대한제국 의친왕비의 기증 유물은,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기로 넘어가는 격동의 전환기 속, 황실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 천주교와 조선 왕실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특히 의친왕이 천주교 신앙에 귀의하고, 의친왕비가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신앙 안에서 마무리한 그 삶의 궤적을 잘 보여준다. 이 기증 행위는 신앙의 증언으로, 기증된 유물들은 종교유산으로 해석될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의친왕비의 기증 유물은 역사적·종교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유물의 역사성과 종교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의친왕비가 살았던 대한제국기 황실의 구조와 시대적 전환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2.1절), 이어 의친왕비의 생애와 신앙생활을 고찰한다(2.2절). 나아가 그녀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한 유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내재된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분석한다(2.3절). 이와 같은 분석은 다음 장에서 다룰 수녀회의 문화유산 인식과 보존 실천, 그리고 종교 유산화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개인적 맥락을 제공할 것이다.

1. 대한제국 황실의 변화

대한제국 황실은 조선왕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근대 국가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전환 속에서 그 정치적·상징적 위상과 내부 구조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조선왕조는 유교적 이념에 기반한 전제군주제로, 국왕은 ‘천명(天命)’을 받은 절대 권위자로 여겨졌고, 왕실 구성원은 종법(宗法)에 따라 위계를 이루며 국가의 의례와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투, 내부 정치의 부패와 민중 저항의 고조로 인해 왕실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특히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조선은 본격적인 개항 국면에

들어섰고, 청일 간의 영향력 경쟁은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등 연속된 정치·사회적 사건들은 왕실의 통치 기반을 흔들었고,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며 조선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⁴⁾

1895년에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고종은 일본의 위협을 피하고자 1896년 아관파천을 단행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제26대 왕인 고종(高宗, 1852~1919)은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하고 황제 즉위를 선포하였다.⁶⁾ 이는 단순한 국호 개칭을 넘어 군주국에서 제국 체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정치적 선언이었으며,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기반한 동아시아 전통 질서에서 벗어나 서구 중심의 국제 체제에 편입하려는 외교적 시도이기도 하였다.⁷⁾

이런 체제 변화는 황실 구조와 구성원 명칭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졌다. 조선왕조에서 ‘왕’이 지녔던 지위는 대한제국에서 ‘황제’로 격상되었고, 이에 따라 국왕은 황제(皇帝)로 바뀌었다. 정비인 왕비는 황후(皇后)로 호칭되었고 후궁은 ‘귀비’, ‘황귀비’, ‘귀인’ 등의 직책으로 구분되었다. 자녀에 대해서도 왕자 대신 황자(皇子), 공주 대신 황녀(皇女)라는 칭호가 사용되었고, 왕세자 대신 황태자를 의미하는 태자(太子), 그 배우자인 ‘태자비’ 등 제국적 서열에 맞춘 명칭이 채택되었다. 황실의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궁내부 및 내장원 등의 관서가 정비되었고, 황실은 제도적으로도 근대적 국가 체제의 중심으로 기능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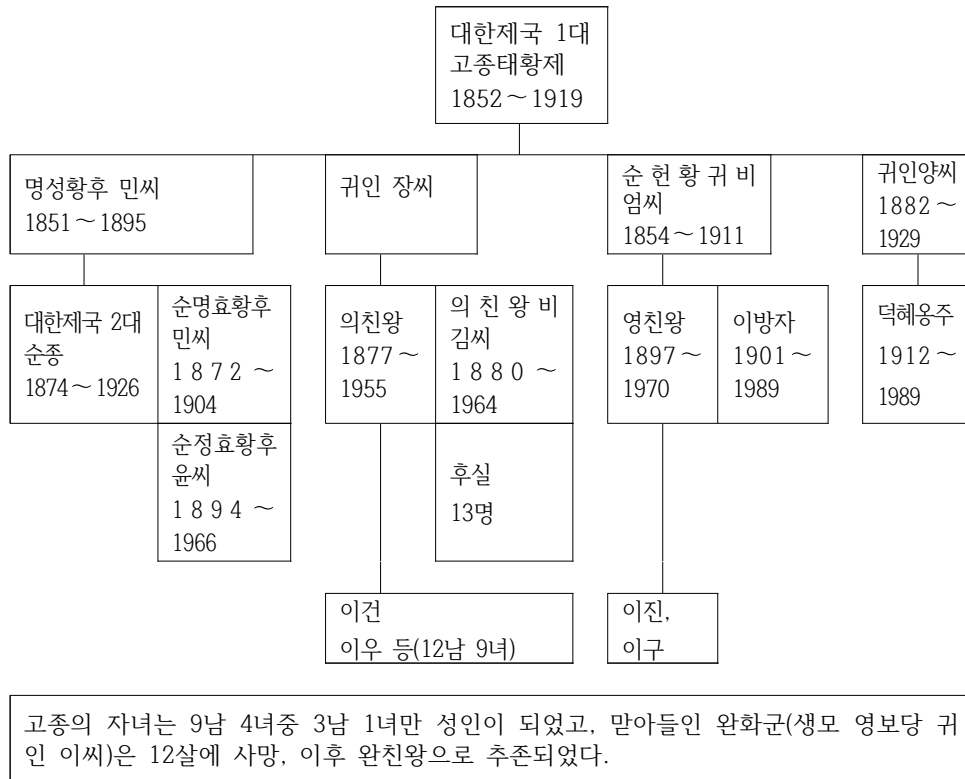
4) 한국역사연구회, 『시민의 한국사-근현대편』 2, 2022, 34~59쪽.

5) 임민혁, 「추봉책봉의례 해제」 『추봉책봉의례 전』, 서울역사박물관, 2007, 11쪽.

6) 한영우, 「대한제국 성립과정과 大禮儀軌」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규장각, 2001, 194쪽.

7) 이정희, 위의 논문, 235쪽; 최덕수,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2005, 39~42쪽.

<표 1> 대한제국 황실 가계도⁸⁾



의친왕(義親王)은 고종의 둘째 아들이자 1891년 의화군(義和君)의 작위를 부여받았고, 대한제국 구조 변화에 따라 1900년 ‘친왕’ 작위를 받은 황자로 격상되었다. 이는 대한제국 내에서 황족의 위계가 단순한 혈연이 아닌 정치적 의도와 외교적 위상에 따라 정해졌음을 보여준다. 그의 배우자인 의친왕비 역시, 조선시대의 ‘왕세자빈’이나 ‘세자빈’과는 다른 호칭과 위계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정비 과정 속에서 여성 황족의 지위 변화를 반영하는 사례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근대화 시도는 실질적인 정치·군사적 기반의 결여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향권에 편입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통해 외교권을 상실하였다. 이어 1907년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유로 강제 퇴위당한 이후, 일본은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⁹⁾을 통해 입법, 행정, 인사권을 통감부

8)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2025.04.08.검색)

아래 두며 내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제국 황실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결국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소멸하였고, 황실은 일본 제국의 왕공족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후 황실 구성원들은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일본의 통제 하에서 상징적 존재로만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은 대한제국 황실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황실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조건과 정체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2. 대한제국 의친왕비의 생애와 신앙생활

1) 의친왕비의 가문

의친왕비의 본명은 김덕수(金德修, 1880~1964)¹⁰⁾이고 아명은 숙(淑)이다. 선조(宣祖, 1552~1608)의 장인인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梯男, 1562~1613)의 후손이며 연안김씨 김사준(金思濬, 1855~1917)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부친 김사준은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과 규장각지후관(奎章閣祗候官)을 역임한 문신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남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 참의가 되었지만 1915년 독립군에 군자금을 보내고, 고종을 망명시키는 일에 가담한 사실이 발각되어 남작 작위 박탈과 1년 투옥생활을 하고 석방되었다. 이후 감옥생활의 여파로 1917년 3월

9) 한국역사연구회, 위의 책, 88쪽. 한편 이 조약은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강제 체결한 것으로,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제1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제2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제4조) 등을 규정해 통감은 한국의 대외정을 모두 총괄하는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가 됐다.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의 설치를 규정한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에 이어 <한일신협약>까지 강제 체결되면서 한국은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대부분 잃었다.

10) 의친왕비의 출생년 표기가 자료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은 관련 자료들이다.

① 호적 기록: 1878년 11월 27일 표기

② 세례 문서: 1880년 12월 22일 표기

③ 이해경 저서: “의친왕비로 받은 작은 책자에 ‘의친왕비는 경진 11월 21일(양력 12월 22일)탄생. 3세에 임오군란(1882)으로 피란...”이라는 부분이 있고, ‘의친왕비 1878.12.22~1964.01.14.’로 표기된 곳도 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 2023, 270-273쪽). 이해경의 저서에서도 경진년(1880년)과 1878년으로 표기되고 있어 위 내용을 종합하면 출생년도는 1880년 11월 21일(양력 12월22일) 음력 표기와 1878년 11월 27일 호적 표기, 그리고 1878년 12월 22일 양력 표기가 존재한다.

사망하였다.¹¹⁾

의친왕비의 집안이 왕실과의 혼인을 꺼렸는데 그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중 광해군의 정치적 견제로 인해 아버지 김제남과 형제들, 그리고 아들 영창대군을 잃은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1632)가 친정에 왕실과의 혼인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을 유언처럼 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친왕비의 부친 김사준도 초기에 혼사를 거절하였으나, 왕실에서 신부를 깊이 마음에 들어 하여 혼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¹²⁾고 전해진다.

2)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의친왕비의 위상 변화

의친왕비는 1893년 10월 29일에 고종 황제와 귀인 장씨(貴人 張氏) 사이에서 태어난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堯, 1877~1955)과 혼인하여 연원군부인(延原郡夫人)에 봉해졌다.¹³⁾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다음날 고종(高宗)은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고종황제의 둘째 아들인 이강은 1900년 8월 17일에 의왕(義王)에 봉해졌지만, 당시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1906년에야 즉위했다.¹⁴⁾ 그리고 의친왕비는 같은 해에 봉해지지 못하고 1907년 의친왕비로 봉해졌다.

대한제국의 황실 위계 정비 과정에서 의친왕 이강은 황태자의 동생으로서 공식적인 황실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의친왕비 역시 황실 여성으로서 중요한 상징적·의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내에 있던 의친왕비는 1906년 의친왕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¹⁵⁾, 1908년 새로 근대식 건축물로 신축된 의친왕의 공식 거처인 사동궁(寺洞宮)으로 거처를 옮겼다.¹⁶⁾ 이와 함께 의친왕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의친왕부(義親王府)’도 설치되었으며¹⁷⁾, 이는 의친왕비 역시 황실 여성으로

11) 이해경, 위의 책, 279쪽; “金思濬 長逝” <매일신보> 1917년 3월 8일 2면.

12) 이해경, 위의 책, 267-269쪽.

13) 오윤대한국순교자박물관, 『황가의 기품』, 21쪽.

14) 이정희, 「1900년(광무4) 의왕·영왕 책봉과 《義王英王冊封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 서울대학교규장각, 2005, 238쪽.

15) “義親王殿下大歡迎” <황성신문> 1906년 4월 7일 1면; “義親王歡迎一編” <황성신문> 1906년 4월 7일 2면.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2025.04.08.검색)

16) “義親王宮新建築” <황성신문> 1908년 4월 7일 2면.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2025.04.08.검색)

서 보다 공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황실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외교적·정치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¹⁸⁾ 이에 따라 의친왕뿐만 아니라 의친왕비의 위상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3)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로: 의친왕과 의친왕비의 신분 변화

1907년 7월 19일,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純宗, 1874~1926)을 즉위시킨 후 대한제국 황실의 정치적 권한을 더욱 축소시켰다. 같은 해 7월 24일, 불평등조약인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체결로 인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황실의 운영 역시 일본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결국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고, 황실은 ‘이왕가(李王家)’라는 명칭으로 일본 황실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¹⁹⁾

의친왕은 1919년 3·1운동 이후²⁰⁾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여 조선을 탈출해 임시정부²¹⁾가 있는 상하이로 망명하고자 시도한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동단 사건’이다²²⁾.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친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고, 의친왕비 역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사실상 감금 생활²³⁾과 다름없는 환경에 처한다. 이해경 여사는 저서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에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17) 경운박물관,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 기록과 기억』, 2022, 45쪽.

18) 최덕수,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2005, 168쪽.

19) 한국역사연구회, 위의 책, 92쪽.

20) 경운박물관, 위의 책, 72~79쪽; “義親王의 親書” <독립신문> 1919년 11월 20일 1면; “「한국독립문헌전시회」 독립선언서 18종 포함” <경향신문> 1983년 6월 14일자 11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08.검색)

21) 이영철, 『자료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2020, 136~136쪽.

22) “李塈公事件” <매일신보> 1919년 11월 27일, “李塈公殿下를 擁하여 朝鮮獨立을 謀하던 秘密輸結社大同團” <조선일보> 1920년 6월 30일; “李塈公殿下誘拐한 大同團判決書” <조선일보> 1920년 12월 26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08.검색)

23) “義親王近狀” <독립신문> 1920년 1월 31일 2면; “義親王이 東京行을 強硬히 拒絕” <독립신문> 1920년 4월 13일 1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2025.04.08.검색)

지밀(至密) 대청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장지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그만 유리창이 하나 달려 있었다. 이상해서 어머니께 여쭙봤다. ‘그건 네 아버지께서 연금당해 계실 때 일본 헌병이 아버지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란다.’ 어머니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물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연금이 풀린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왜 그 유리창을 없애지 않고 그냥 두었을까 하는 점이다.²⁴⁾

의친왕에 대한 일제의 감시는 이렇듯 왕실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궁 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인 의친왕비의 거처 지밀(至密)에까지 그 통제와 억압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로는, 1961년 6월 13일자 <경향신문> 3면에 실린 의친왕비 인터뷰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서 기자가 “왜정 시절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의친왕비는 “독립당이 와서 잡아간다고 일본 순사들이 구명 하나 남기지 않고 지켜서 갇힌 생활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하였다.

이 진술은 일제강점기 동안 왕실 인물들에 대한 일본 경찰의 감시가 일상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의친왕비와 같은 여성 구성원들조차도 정치적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한다.

1925년,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의친왕의 지위를 ‘이강공(李綱公)’으로 강등시키는데, 이는 대한제국 황실이 점점 무력화되어 가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후 1930년 6월 12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의친왕은 자신의 장남 이건(李建, 1909~1990)에게 ‘공작위’를 넘겨준다.²⁵⁾ 결국 의친왕과 의친왕비는 완전히 평민 신분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대한제국 황실을 해체해서 그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24) 이해경, 위의 책, 251쪽.

25) 이해경, 위의 책, 255~257쪽.

4) 해방 이후 혼란의 시기

1945년 해방 이후, 혼란한 정세 속에 남한과 북한의 개별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제국 황실을 법적으로 계승하거나 인정하는 세력은 없었다.²⁶⁾ 따라서 황실 구성원들은 새로운 사회 체제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런 격변하는 시국 속에 왕실이 더 설 수 없었던 사건도 발생한다. 1947년 4월 2일 <한성일보> 기사를 보면 “詐欺에 걸린 李岡公”²⁷⁾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 이는 의친왕 이강이 자신의 사저인 사동궁을 일반인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는데 그마저도 합의 금액을 받지 못해 상대를 사기횡령이라며 1947년 4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다룬 기사다.²⁸⁾ 이 사건으로 인해 사동궁을 지키던 의친왕비의 처소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제국 황실은 더 이상 국가 안에서 제 위상을 회복할 수 없었고 황실 재산 또한 국가에 귀속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²⁹⁾ 왕궁재산처분법(舊王宮財産處分法)이 1950년 4월 8일 제정·시행되어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조선 왕실의 재산을 국유화하며,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구 황실 재산 환수법’을 통해 황실 재산이 국가소유로 정리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의친왕과 의친왕비는 다른 황실 가족들과 함께 부산 서면의 포교당에 머물며 피란생활을 하였다.³⁰⁾ 이후 서울 수복 이후 안국동별궁으로 돌아왔지만 몰락한 왕가에 대한 사람들의 냉대는 심했다. 의친왕은 전쟁 중 얻은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죽을 때까지 의친왕비와 함께 별궁에서 지냈다.

5) 의친왕비의 천주교 입교와 생애 말년

의친왕비는 해방 이후 왕공족 해체와 함께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상실하

26) 박찬승,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330~336쪽.

27) "詐欺에 걸린 李岡公" <한성일보> 1947년 4월 2일 2면.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2025.04.15.검색)

28) "義親王宮은 어디로" <대한일보> 1948년 9월 14일.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2025.04.15.검색)

29) "榮華도 泡沫로 사라진다 幻想만 남은 李王家" <남조선민보> 1949년 2월 13일 2면.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2025.04.15.검색)

30) 이해경, 위의 책, 112쪽.

고 생애 말기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 시기 천주교 수도회와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그녀는 천주교 신앙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³¹⁾ 유물 기증 역시 이러한 전환적 삶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³²⁾

의친왕은 국왕의 아들이자 대한제국 황실의 일원이었음에도 말년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채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평소 천주교에 뜻을 두고 있었고 전 국무총리 장면(요한, 張勉, 1899~1966), 윤형중(마태오, 尹亨重, 1903~1979)신부 등의 권유로 임종 전에 세례를 받았다. 1955년 8월 20일, 그의 장례는 천주교 전례에 따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노기남 대주교의 주례로 집전되었다.³³⁾ 의친왕비는 의친왕 보다 먼저 천주교를 믿고 있었지만, 세례는 1955년 8월 14일 천주교 가회동 성당에서 받았다.

의친왕이 1955년 8월 16일에 타계한 후 의친왕비는 그동안 안국동별궁에서 지내던 안전한 생활도 사라지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 거처를 화양리에 있는 의친왕 묘 재실로 옮겨³⁴⁾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비로 궁핍한 삶을 이어갔다.³⁵⁾ 정환희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격변하는 시기 의친왕비는 거취문제가 심각하여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는 국가적 무관심도 문제였지만 의친왕의 가족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의친왕의 많은 후실과 자녀들은 의친왕비에게 의존하며 생활을 이어가려 했고 왕실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등³⁶⁾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의친왕비가 금곡 재실이나 안국동별궁 등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왕가(李王家) 대표자 선정 문제로 낙선재 안주인 순정효황후 윤(尹)대비와 관계가 편하지 않았다³⁷⁾고 한다.

시대적 변동에 따라 의친왕비의 대내외적 위상 변화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31) 인터뷰 영상 전사본 4쪽.

32) 이와 관련된 자세한 구술자료와 해석은 제3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3) “李堉義親王” <조선일보> 1955년 8월 17일 3면; “故李堉公葬儀嚴修” <동아일보> 1955년 8월 21일 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5.검색)

34) 이해경, 위의 책, 280쪽.

35) 인터뷰 영상 전사본 12~13쪽.

36) “왕족이 협잡배와 결탁! 구왕궁재산매각” <경향신문> 1953년 5월 10일 2면.; “세정(世情) 어두운 사양족(斜陽族)을 속여 이건공재산(李鍵公財産)을 이삼중매매(二三重賣買)” <경향신문> 1958년 09월 18일 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5.검색)

37) 인터뷰 영상 전사본 14쪽.

의친왕과의 관계도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친왕의 다섯째 딸 이해경 여사가 2011년 6월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회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아버지는 사동궁에는 거의 있지 않고, 후실이 생길 때마다 궁 밖에 집을 지어주고, 그 집들을 돌면서 생활했어요. 의친왕비가 사동궁을 지켰고 제가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의친왕비와 지냈어요.³⁸⁾

이 증언은 의친왕비가 겪었던 어려움이 왕실 위상의 변화에 따른 외적 제약만이 아니라 의친왕의 사생활 때문에 겪어야 했던 내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의친왕은 다수의 후실과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생계와 돌봄의 문제로 의친왕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³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친왕비는 '왕의 정비(正妃)'라는 상징적 지위를 유지하며 후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친왕비는 4.19 혁명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장면 국무총리의 도움을 받아⁴⁰⁾ 화양리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1961년 칠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경향신문> 1961년 6월 13일자 기사는 '七宮으로 돌아온 金妃'라는 제목으로 의친왕비의 환궁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25일 그동안 뚝섬박 화양리 義親王 재실에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던 金妃가 화려한 행차도 없이 조용히 시내 효자동에 있는 七宮으로 돌아왔다.⁴¹⁾

위의 기사가 말하듯 그동안 의친왕비의 생활은 근근이 이어갈 정도로 어

38) “이해경…고종의 손녀, 의친왕의 다섯째 딸 ‘왕가의 아련한 추억’” <중앙일보> 2011년 6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5591657> (2025.04.15.검색)

39) “영화榮華와 비운悲運의 구름다리 의친왕비義親王妃의 생애生涯 下” <동아일보> 1964년 1월 20일 6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5.검색)

40) 박찬승, 위의 책, 377쪽.

41) “七宮으로 돌아온 金妃” <경향신문> 1961년 6월 13일 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5.검색)

려웠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왕실의 위상은 사라졌다. 재실은 능 제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곳으로 왕릉을 관리하던 능참봉이 상주하는 곳 이어서 왕비가 거처하기엔 협소한 곳이다. 정환희 여사의 증언에서도 의친 왕비가 환궁한 칠궁도 왕자를 낳은 후실의 위패를 모신 신당으로 사람이 지 낼 수 있는 곳이 못 되어, 집을 수리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⁴²⁾ 이후 칠궁에서 조용히 천주교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노년의 여생을 보내던 의 친왕비는 1964년 1월 14일에 세상을 떠났다. 왕비의 장례는 천주교 예식으로 7일 동안 진행되었고 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당시 서울 교구장이었던 노기남 대주교의 주례로 장례미사가 봉헌되었다. 왕비의 묘소는 의친왕묘와 함께 조성되지 못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유릉에 마련되었다.⁴³⁾ 이후 1996년 11월, 의친왕의 5녀 이해경 여사의 노력으로 의 친왕비 묘는 서삼릉에 있던 의친왕묘를 천장하여 홍유릉 지역의 새로운 터 로 옮겨 합장되었다.⁴⁴⁾



<그림 1> 1955.08.21. <경향신문> 의친왕 장례⁴⁵⁾ <그림 2> 1964.01.15. <경향신문> 의친왕비 장례⁴⁶⁾

42) 인터뷰 영상 전사본 3쪽.

43) “의친왕비영결義親王妃永訣미사” <동아일보> 1964년 1월 20일 7면; “칠궁七宮이 운다” <조선일보> 1964년 1월 15일 7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5.검색)

44) “의친왕·왕비 묘 29일 합장” <경향신문> 1996년 11월 27일자 25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6.검색)

45) “이강공(李爾公) 장례(葬禮)미사 각계인사참석하(各界人士參席下) 엄수(嚴修)” <경향신문>

요약하여 말하면 의친왕비는 대한제국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황실 여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의친왕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뀔에 따라 황실 위상이 전환되고 아울러 그녀의 역할 또한 달라졌다. 일제강점기의 강압적 통치로 인해 황실의 권위는 약화되었다. 1919년 대동단 사건 이후 일본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결국 1925년에는 의친왕과 의친왕비의 지위가 ‘공’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1935년에는 평민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대한제국 황실은 몰락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의친왕비는 삶의 기반을 상실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사동궁의 매각과 의친왕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거처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한제국 황실의 위상은 사실상 몰락한 상태였다. 국가로부터 지급된 생활보조금 또한 의친왕의 후실 가족들과 분할 사용해야 했기에, 일상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조차 어려움이 따랐다.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한제국 황실 구성원이 겪은 역사적 퇴조와 더불어, 개인적 삶의 위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친왕비는 천주교로 입교해 남은 생애를 신앙에 의지해 살아가게 된다. 말년의 종교적 귀의는 단지 개인의 신앙 선택을 넘어, 박해의 주체였던 조선 왕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된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긴장과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던 조선 왕실과 천주교 사이의 관계 전환, 나아가 종교적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의친왕비의 삶은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를 관통하는 격동의 근대사 속에서 상징적으로 왕실의 몰락과 신분적 전환을 보여준다. 그 삶의 궤적은 단순한 한 인물의 생애를 넘어, 한 시대의 역사적 변화와 황실의 운명을 집약하는 사례로서, 역사적·종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따를 수 있다.

1955년 8월 21일 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6.검색)

46) “사양왕가 비극의 상징 의친왕정비 김수덕씨 별세” <경향신문> 1964년 1월 15일 6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6.검색)

3. 대한제국 의친왕비의 기증 유물 현황과 의미

현재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왕실 관련 유물은 총 80여 점이며, 대부분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시기의 것이다. 이들 유물은 의친왕과 의친왕비 관련 유품을 비롯하여, 흥선대원군, 순정효황후 등 대한제국 주요 인물들이 사용한 다양한 물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유물의 사용자와 제작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대한제국⁴⁷⁾ 유물 현황⁴⁸⁾

사용자	흥선대원군	의친왕	의친왕비	순정효황후	영왕
시 대 생물연대	1820~1898	1877~1955	1878~1964	1894~1966	1897~1970
관모	2	2		2	
복식		1		3	
장신구	2		18	14	1
서지류	7	2	1		
기타	2		17	3	
총점수	13	5	36	22	1

이 가운데 의친왕비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한 유물은 의친왕이 공식 의례 석상에서 착용하거나 사용한 원유관(遠遊冠), 단령(團領), 익선관(翼善冠), 의궤(儀軌) 등으로 구성된 다. 이들 유물은 대한제국기 황실의 위계질서와 정치적 권위를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왕실 구성원의 신분과 위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47)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왕실 유물의 시기는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시기다. 여기서는 편의상 대한제국으로 통칭한다.

48) 하신혜(2012)의 논고에서 기술한 유물 현황표를 참고했다. 위 현황표는 하신혜의 2012년 조사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유물 현황표를 다시 작성했다.

<표 3> 의친왕비 기증 유물 현황

분류	내용	점수
복식류	의왕 단령	1점
관모	의왕 원유관. 익선관	2점
서지류	『의왕영왕책봉의궤』 『추봉책봉의궤』, 『선원계보기략』	10점
수식장신구류	어여머리, 새양머리, 첩지, 조바위 등	8점
비녀류	칠보잠, 매죽잠, 용잠, 매화잠, 버섯잠, 흑각잠	7점
사진류	의친왕가 가족사진, 창경궁 사진첩 등	9점
기타	옥가락지(쌍지환), 금속 반지, 지팡이 등	4점

위 <표 3>에서 보듯 의친왕비가 기증한 유물은 전체 41점이며 의친왕비 관련 유물은 장식류가 많다.

1) 『의왕영왕책봉의궤』와 『추봉책봉의궤』

(1) ‘조선왕조 의궤’ 개요

의친왕비가 기증한 서지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유물은 현재 보물 제 1901-6호로 지정(현 2016-6)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 『의왕영왕책봉의궤』와 『추봉책봉의궤』 2건 2책이다. 조선왕조 의궤는 조선 왕실에서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국가 의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절차와 사용되는 품목, 참여자 등 그 내용을 기록과 그림으로 상세히 정리한 기록유산이다.⁴⁹⁾ 의궤는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의 책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존재⁵⁰⁾했기에 여기서는 ‘조선왕조 의궤’(이하 의궤)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제작되었고 국가의 주요 기관과 사고(史庫)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의궤들

49) 박정열, 「의궤란 무엇인가」 『대한제국기 의궤』,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2022, 12쪽.

50) 김문식, 「조선왕조의 의궤, 과거와 현재」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 11쪽.

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 이후 제작된 것들이다⁵¹⁾. 본 박물관이 소장한 의궤는 1900년과 1907년에 제작된 것으로 대한제국 시기(1897~1910)에 해당된다. 당시에 의궤를 제작하는 도감과 의궤청이 존속하고 있었고 조선왕조의 의궤 제작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이 시기 제작된 의궤 역시 ‘조선왕조 의궤’로 간주하고, 2016년 5월에 ‘조선왕조 의궤’라는 명칭으로 일괄 통칭해 보물로 지정하였다.⁵²⁾ 또한 ‘조선왕조 의궤’는 재현가능성과 독창성, 인쇄물로서 완성도가 빼어나 동아시아 문화권(유교문화권)에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7년 8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⁵³⁾

현재 조선왕조 의궤의 소장처는 국가유산청 보물지정 관리자 기준으로 12 곳이다. 가장 많은 의궤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연구원으로 그 수량은 1,373건 2,203책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있고 이어 국립고궁박물관과 최근에 건립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2023)이 있다. 이 외에도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있다.⁵⁴⁾

(2) 『의왕영왕책봉의궤』와 『추봉책봉의궤』의 특징

본 박물관 소장 『의왕영왕책봉의궤』와 『추봉책봉의궤』는 의친왕이 열람한 어람용(御覽用)이고 제작방식은 필사본이며 형태는 비유일본 완질본(完帙本)이다.⁵⁵⁾ 1897년 10월 13일, 고종이 대한제국의 성립을 선포하여 자주독립국가임을 천명하면서⁵⁶⁾ 대한제국은 왕실이 황실로 격상되고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후국으로서 행할 수 없었던 천자, 행실의 예를 행할 명분을 갖게 되었다.⁵⁷⁾ 조선 왕실에서는 없던 새로운 의궤가 생겨났는데 가장

51) 이현주,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조선왕조 의궤」 『대한제국기 의궤』,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2022, 21쪽.

5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2025.02.04.검색)

53)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조선왕조_『의궤』 (2025.04.14.검색)

54) 이현주, 위 논문, 21쪽.

55) 이현주, 위 논문, 20쪽;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2025.02.04.검색)

56) 이정희, 위 논문, 235쪽.

57) 장을연, 「대한제국 황실의 책봉의례와 금책」 『대한제국기 황실 의례와 의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17쪽.

먼저 시행된 것으로 황태후, 황후, 황태자, 친왕 등의 책봉을 꼽을 수 있다. 황실은 격상된 위상에 걸맞게 1900년 8월 17일 고종의 둘째 황자 의화군 이강을 의왕(義王)으로, 셋째 황자 이은(李垕, 1897~1970)을 영왕(英王)으로 책봉한다. 『의왕영왕책봉의궤』는 그 예식이 상세히 기록된 기록유산이다.



<그림 3> 『의왕영왕책봉의궤』



<그림 4> 『추봉책봉의궤』

이 의궤는 황제국으로 거듭난 후 황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거행된 행사로 조선왕조에서 행해진 적이 없는 예식이고 선왕 추존 예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제도였다.⁵⁸⁾ 그래서 의궤는 대한제국기 황실 의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역사성과 문화사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추봉책봉의궤』는 대한제국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황실 위상의 격상이라는 명분과 그 배경을 담고 있다. 고종 황제는 아들 이강과 이은을 친왕으로 책봉하여 황실 인원들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이에 이어서 순종황제 즉위 계기로 시행된 황실 구성원들에 대한 존숭, 1907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1~1898)과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 1818~1898) 그리고 완화군(完和君, 1868~1880)과 연원군부인(延原郡夫人)을 동시에 추봉 책봉하였다. 그 예식을 담고 있는 의궤가 바로 『추봉책봉의궤』다. 이 의궤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체제 변화에 따른 대한제국 고유의 칭호를 사용하였다는

58) 이정희, 위의 논문, 242쪽.

것, 즉 대원군과 부대부인을 왕과 왕비로 추봉하면서 ‘대원왕’과 대원비’라고 하는 칭호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칭호의 등장은 이 의례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호칭의 사용 배경이나 이유는 다른 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⁵⁹⁾ 또한 이 의례에는 의화군 이강의 부인 연원군부인 김씨가 1907년 8월 25일 의친왕비로 추봉 책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봉책봉의례』는 대한제국기 황실 구성원들의 위상 변화와 순종 황제의 즉위를 전후하여 시행된 황실 구성원들에 대한 존숭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 의례에는 순종 연간에 거행된 의례를 위해 동원된 물품의 종류와 규격, 인력 구성, 관련 관청과의 협조 체계, 그리고 각종 의식 절차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대한제국 시기 궁중 의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시기의 사회경제 구조와 문화생활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궁중 기록물로 간주될 수 있다.⁶⁰⁾

(3) 의례 구성내용

『의왕영왕책봉의례』은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비유일본이고 완질본이며 어람용이다. 구성은 목차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록되어 있는 항목을 포함하면, 의왕영왕책봉의례목록(義王英王冊封儀軌目錄), 시일(侍日), 좌목(座目), 조칙(詔勅), 사목(事目), 장례원주본(掌禮院奏本), 의주(儀註), 의왕금책문(義王金冊文), 영왕금책문(英王金冊文), 인식(印式), 책인봉과식(冊印封褻式), 도설(圖說), 반차도(班次圖), 조작(造作), 실입(實入), 공장(工匠), 감결(甘結), 재용(財用), 상전(賞典), 의례사례(儀軌事例)로 구성된다.

고종황제의 조칙에 따르면, 황자를 왕으로 책봉하는 의식은 장례원에서 길일을 택하여 거행하며, 황자에게는 각각 ‘義’, ‘英’이라는 봉호를 내린다. 그리고 이 의례는 1900년(경자년) 7월 책례도감(冊禮都監)에서 편찬하였고 책인조성소(冊印造成所)를 태복사(太僕司)에 설치하고 의왕과 영광의 금책과 금인을 각각 1건 1과씩 조성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⁶¹⁾

59) 임민혁, 「추봉책봉의례 해제」『추봉책봉의례』, 서울역사박물관, 2007, 26쪽.

60) 이현주, 위의 책, 40쪽.

61) 이현주, 위의 책, 25쪽.

『추봉책봉의궤』는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비유일본이고 완질본이며 어람용이다. 구성은 목차에 누락되어 있는 항목까지 포함하면, 추봉책봉의궤 목록, 시일(侍日), 좌목(座目), 조칙부주본(詔勅附奏本), 장례원주본(掌禮院奏本), 의주(儀註), 인식(印式), 금책문(金冊文), 인쇄봉과식(印冊封裹式), 도설(圖說), 반차도(班次圖), 조작(造作), 소입(所入), 공장(工匠), 감결(甘結), 실입(實入), 재용(財用), 상전(賞典), 의궤사례(儀軌事例)로 총 18개이다.

2) 의친왕의 복식

(1) 의왕 원유관(義王 遠遊冠)

① 원유관 특징

‘의왕 원유관’은 고종황제의 둘째 아들 이강이 의화군(義和君)에서 의왕(義王)으로 책봉될 때 착용한 관모(冠帽)로⁶²⁾ 의친왕비가 직접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한 유물이다. 이 원유관은 왕 또는 황제가 실제로 착용한 관모 중 현존하는 유일한 실물로,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왕실 복식 문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희소한 유물이다.⁶³⁾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한 이후, 제국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왕실 위계질서를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황실의 적통 계승자인 이척(순종)을 황태자로 책봉하였으며, 기타 아들들에게는 친왕의 작위를 부여하여 제도화된 위계 구조의 제도화를 마련하였다⁶⁴⁾. 이강은 본래 의화군(義和君)이었으나, 황제 즉위 이후 친왕 작위인 ‘의왕(義王)’에 봉해졌고, 이러한 책봉은 대한제국기 황실 위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의왕 원유관은 이런 역사성과 예술성을 함께 담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유물이다. 이를 증명하듯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구장복 일습(면류관) 복원 사업’⁶⁵⁾을 실시할 당시 면류관 복원 시 관모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본 박물관

62) 하신혜, 2013, 20쪽; 김소현, 의친왕가 유물로 보는 대한제국 전후의 복식제도, 복식, 73(6), 63쪽(2023).

63) 문화재청 고시 제2013-56호(의왕 원유관 지정이유).

64) 김소현, 위의 논문, 61쪽.

65)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수신공문 2009.11.2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 열람 협조

관 소장품인 ‘의왕 원유관’을 실견하였다. 현재 원유관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되어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6)에 따라 국사유산청의 관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인 훈증 소독⁶⁷⁾과 유물의 컨디션을 점검한다.



<그림 5> 의왕 원유관



<그림 6> 의왕 원유관의 금장식, 화관, 술

② 원유관의 실측 내용

의왕 원유관의 소재는 겉감은 추사(秋紗)이고 안감은 검은색 갑사(甲紗)로 색상은 보랏빛을 띠는 심자색(深紫色)이다. 크기는 높이가 21.8cm, 폭이 25cm, 밑지름이 16.5cm, 둘레가 55cm이다. 형태는 머리에 쓰는 부분인 하부와 장식부분으로 이뤄진 상부로 나뉘는데, 하부 가장자리에 너비 1cm 정도의 금선(金線)을 둘러 형을 고정하였다. <그림 6>에서 보듯 하부 정면과 후면에 가로 4.2cm, 세로 2.8cm의 당초문(唐草紋)과 용문(龍紋)을 새긴 금장식이 있다. 관모 양쪽 측면에는 관모를 고정하는 비녀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이화문(梨花紋)의 화판(花板)을 각각 장식하였다. 관모의 매듭끈은 동다회(童多繪)로 되어 있고 금사로 만든 가락지매듭을 끼운 방망이술이 달려있다. 상부 장식은 8량으로 통천관과 달리 적, 백, 청의 세 가지 색의 구슬만 꿰어져 있다.⁶⁸⁾

요청 건: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 2012.

6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문화유산법)[시행2025.02.14.][법률 제 20286호, 2024.02.13. 일부개정] 제26조 및 제 34조.

67)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수신공문 2024.09.14.: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1055(2024.9.13.) 호,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14208(2024.9.13.).

68) 하신혜, 위의 논문(2013), 23쪽; 김소현, 위의 논문, 62쪽; 이민주, 『한국의식주생활사

(2) 의왕 익선관(翼善冠)과 단령(團領)

익선관은 조선시대에 왕과 세자가 시무복(視務服)인 곤룡포(袞龍袍)를 착용할 때 함께 쓰던 관모로, 국정 수행 시의 예복에 해당하는 관복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⁶⁹⁾



<그림 7> 의왕 단령



<그림 8> 익선관

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왕 익선관 <그림 8>은 조선시대 왕세자가 쓰던 것과는 다른 진보라색이며 영친왕 익선관의 색상과 유사한 색이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 조선왕조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색조를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⁷⁰⁾ 이와 함께 의왕 단령 <그림 7>의 옷감 색도 짙은 흑색 운문사이고 안감은 홍색 운문사를 사용했다.⁷¹⁾ 단령은 깃이 둥근 형태의 포(袍)로 의례용과 집무용 등 백관들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관복(官服)의 하나로 시기별 그 형태가 다르고 여러 종류였지만, 1884년 관복제도 간소화 이후에는 통일된 형태로 남게 된다.⁷²⁾ 의친왕이 착용한 복식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황실 위계질서 정립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교적 예법에 따

전』, 2017, 552쪽.

69) “익선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787> (2025.04.13.검색)

70) 김소현, 위의 논문, 64쪽.

71) 하신혜, 위의 논문(2013), 145쪽.

72) 최은수, 『한국의식주 생활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7, 151~155쪽.

라 엄격히 규정되었던 조선시대의 예복 체계와 달리, 대한제국기에는 황실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복식의 색상과 형식에 일정한 차별성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의왕의 익선관과 단령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황실의 위상 재정립을 상징하는 복식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의친왕비의 장식류

순교자박물관에 소장된 의친왕비 관련 유물 중에서 서지류를 제외한 몇 가지만 살펴본다.



<그림 9> 의친왕비 조바위



<그림 10> 어여머리



<그림 11> 새양머리

첫 번째는 의친왕비가 사용한 조바위 <그림 9>다. 조바위는 조선시대 여성이 외출할 때 머리에 쓰는 뺨을 둥글게 감싼 형태의 방한모로 조선 후기에 아얌이 사라지면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⁷³⁾ 의친왕비의 조바위는 당초 무늬와 매화무늬가 있는 검은색 문단(紋緞)으로 만들었다. 앞뒤 중심에는 남색 잔술이 달렸고 산호줄로 연결되었다. 총길이는 19cm이다.⁷⁴⁾

두 번째는 어여머리 <그림 10>와 새양머리 <그림 11>다. 이 어여머리와 새양머리는 모두 의친왕비가 직접 만들어 복자수녀회에 기증한 것이다. 어여머리는 조선시대 예장용으로 궁중이나 반가의 부녀자가 하였고, 상궁 중

73) 이명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7, 618~619쪽.

74)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항가의 기품』, 32쪽.

에는 지밀상궁만이 하였다. 어여머리를 할 때에는 뒤통수에 쪽을 지고 앞머리에는 어염족두리를 쓴 후 그 위에 굵게 땅아 만든 큰 다래를 쪽 밑에서 어염족두리 위로 얹어 화려한 옥판이나 화잠으로 장식한다.⁷⁵⁾ <그림 10>은 양쪽에 뒤꽂이 2개와 가운데 작은 뒤꽂이 하나가 꽂혀있고 최장너비는 33cm, 최장길이는 29cm이다. 새양머리 <그림 11>는 조선시대 궁중의 나인이나 의녀, 또는 반가의 규수들이 정초나 동지에 문안으로 입궐할 때 하던 머리모양인데⁷⁶⁾ 이 용어는 땅은 머리를 밑에서부터 책감처럼 네모 모양으로 말아 올려 중간을 묶어 고정시킨 새양머리용 다리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⁷⁷⁾ <그림 11>는 총길이 21cm로 검은색으로 염색한 견사로 만든 것으로 붉은색 향라(尙羅)를 감고 있다.⁷⁸⁾



<그림 12> 의친왕비의 지팡이 <그림 13> 세례 사진 속 <그림 14> 1967년 전시

세 번째 유물은 의친왕비의 지팡이<그림 12>다. 이 지팡이는 <그림 13>의 의친왕비 세례 기념사진에서 왕비가 짚고 있는 바로 그 지팡이다. 정환희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의친왕비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피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⁷⁹⁾ 또한, <경향신문> 1961년 6월 13일자 기사에서는 “산책 때는 상궁 대신 맏아들 이건(李健)공

75)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의왕 원유관, 새롭게 빛나다』, 2013, 62쪽.

76) 김용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2017, 456쪽.

77) “새양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http://dh.aks.ac.kr> (2025.04.28.검색)

78)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위의 책(2013), 64쪽.

79) 인터뷰 영상 전사본 5쪽.

이 20여년 전에 봉천(奉天, 현 중국 선양)에서 사다준 단장을 짚는다고 하며 석자짜리(약 90cm) 단장을 쓰다듬었다”는 내용을 통해, 의친왕비가 오랜 기간 해당 지팡이를 사용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팡이의 전체 길이는 84cm이며, 손잡이 부분에는 실을 꼬아 만든 끈고리에 술 장식이 달려 있다. <그림 13>에서는 풍성했던 장식술이 의친왕비가 돌아가신 후 유품으로 수녀원에 전달된 이후 1967년 부산 대양중고등학교에서 전시할 때 사진<그림 14>에서는 술이 빠져 빈약한 게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하다.

Ⅲ.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인식과 보존 활동

앞 장에서 의친왕비 유물의 기증이 이루어진 역사적 맥락과 그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물이 지닌 의미는 그것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주체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본 장에서는 유물을 수용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역사적 배경과 신앙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유물의 종교 유산화 과정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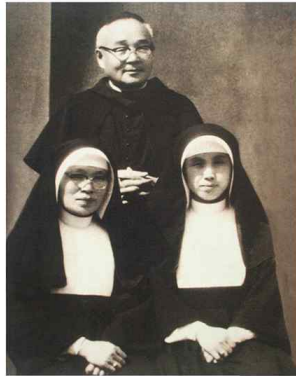
특히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문화유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이 유물 수용과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기증 유물이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유물의 종교 유산화는 곧 수녀회의 정체성과 신앙적 태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해석틀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3.1절에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설립 과정과 그 시대적 환경을 검토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초기 정체성,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고찰한다. 3.2절에서는 수녀회가 문화유산을 실제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현 박물관)을 중심으로 전개된 유산 수집·보존·전시 활동의 발전 과정을 정리한다. 3.3절에서는 의친왕비 유물의 수용 및 종교 유산화 과정이 수녀회 내부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되고 공동체적 의미로 확장되었는지를 구술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장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인식이 어떻게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 정체성과 결합되어 실제적인 유산 보존 실천으로 이어졌는지를 밝히며, 의친왕비 유물이 수녀회 안에서 ‘화해’와 ‘속죄’의 신학적 의미를 지닌 종교유산으로 재맥락화된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1.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설립과 문화인식

1)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설립 배경



<그림 15>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창설,
창설자 방유룡 안드레아 사제
공동창설자 윤병현 안드레아 수녀(左)
공동창설자 홍은순라우렌시오 수녀(右)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1946년 4월 21일⁸⁰⁾, 개성에서 한국인 사제 방유룡 레오(무아 안드레아)⁸¹⁾에 의해 창설⁸²⁾되어, 서울대목구⁸³⁾의 노기남(바오로, (盧基南, 1902~1984) 주교에 의해 1952년 7월 2일에 교구 설립 수도회로 인준되었고, 2021년 9월 20일, 성좌(聖座, 교황청)로부터 성좌 설립 수도회로 인준받아 승격되었다.⁸⁴⁾

- 80)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중요기록집』 1쪽에는 홍은순 수녀 수기로 작성된 “1946년 4월 21일, 復活主日 本會 開會式 午後七時 장소: 開城天主教會 司祭執務室”이란 내용과 함께 개회식 순서와 참석자 명단이 적혀있다.
- 81) 방유룡 사제(1900.03.03.~1986.01.24.)는 서울 중구 중동 출생으로 1917년 9월 15일 소신학교에 입학(17세)했고, 1930년 10월 26일, 서울교구 소속 사제로 노기남(이후 서울대교구 교구장), 윤형중, 임충신 등과 함께 서품된다. 이후 춘천본당을 시작으로 7개 본당 사목을 25년간 이어 왔고, 1955년 10월 교구사제직을 은퇴한 후 1956년 12월 6일 남자수도회(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를 창설한다. 1957년 5월 6일 수도회 종신서원 이후 수도사제이자 수도회 창설자로 생활하다 1986년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한다. 수도회 창설 이후 그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세례명을 따서 ‘안드레아’로 불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신비체험 후 ‘무아無我’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는 한국 순교복자성직수도회(1953)를 설립한 후 이어서 재속 복자회(1957년),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1962)를 설립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60년사-면형무아의 여정』, 2009, 49-59쪽); “한국교회의 등불이 되다 (3) 방유룡 신부” <가톨릭신문> 2023년 4월 23일 8면.
- 8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생활의 쇄신·적응에 관한 교령 Perfectae caritat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1항.
수도회 창설은 가톨릭교회의 오랜 전통 안에서 해석된다. 모든 수도회 창설자들은 그들이 살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영성과 삶을 일으킴으로써 교회 안에 필요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여러 창설자들에 의해 여성 수도생활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시대가 요청하는 복음적 징표의 증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8, 2001, 5062~5067쪽)
- 83) 대목구: 선교지방에서 가톨릭 신자의 규모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는 준교구.

창설자인 방유룡 안드레아 사제가 수녀회 창설을 구상하던 시기는 일본 제국의 식민통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한국천주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운 교회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항일운동 참여 및 민족교육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제한적 종교 환경에 놓여 있었다⁸⁵⁾. 이는 종교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교회가 사회참여보다는 내적 신심과 교리 중심의 활동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천주교회는 조선 후기부터 이어온 순교자 신심을 바탕으로, 민족적 고유성과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다. 1791년의 신해박해를 시작으로,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 조선 후기의 반복된 탄압 속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였다. 순교자에 대한 신심과 기억은 한국천주교회의 정체성 형성에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런 신심의 흐름은 1925년 7월 5일 바티칸 대성당에서 거행된 한국 순교복자 79위 시복미사를 통해 교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적 자긍심과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하였다. 당시 한국천주교회는 신앙의 영적 기반을 강화하고 외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순교자현양회 설립을 추진하여 1939년 9월 8일에 ‘조선천주교 순교자현양회’ 발기인회가 조직되었다.⁸⁶⁾ 이 사업은 윤희중 신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해방과 더불어 1946년 9월 16일 ‘조선천주교 순교자현양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비로소 조직적인 순교자 현양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창설자 방유룡 사제는 해방 이후 노기남 주교를 찾아가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되어 새로운 한국 정부가 설립될 터이니 한국천주교회도 방인 수녀회를 설립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수녀회는 순교복자를 주보로 정하고 순교복자를 현양하며 순교정신을 본받아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수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⁸⁷⁾라고 말하였다 한다.

84)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회헌(CONSTITUTIONES)』, 제1장 1항, 2021, 1쪽. 1946년은 한국천주교회의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 100주년인 해다.

85) 양인성, 『한국천주교회사』 5,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20~21쪽.

86) 조현범, 『한국천주교회사』 5,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298~301쪽.

87)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위의 책(60년사), 74쪽.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한국천주교회가 지닌 역사적 신앙 유산과 영적 가치를 바탕으로, 순교자 현양(殉教者 顯揚)⁸⁸⁾과 민족적 정체성의 수호를 기반으로⁸⁹⁾, 순교자 유산의 보존과 현양, 그리고 한국적 신앙문화의 계승을 특수한 사명으로 여기며 설립되었다.⁹⁰⁾ 이는 가톨릭교회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순교자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⁹¹⁾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며,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을 통해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해온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설립은 한국천주교회가 지닌 순교의 역사와 민족문화의 계승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자 실천적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수녀회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역사적 신념을 교회 안에서 수행할 사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후 유물의 수집과 전시, 교육 활동, 박물관 설립 등 복자수녀회의 다양한 실천적 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2)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인식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창설 초기부터 창설자 방유통 사제의 가르침에 따라 ‘순교자 현양’과 ‘민족문화 계승’을 특수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유물의 수집이나 보존을 넘어, 신앙 실천과 교육,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

88) 윤형중, 『복자수녀원과 순교자현양회와 나』, 1972, 15쪽;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8, 2001, 5164쪽.

한국천주교회의 순교자현양 운동은 교회 창설 직후에 시작된 자발적인 순교 신심 함양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전 교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현양 운동은 일제치하에서 설립(1939.09.24)이 무산되었다가 1946년 9월 16일에 창립된 ‘조선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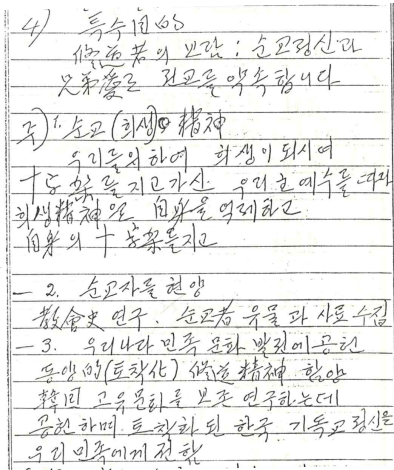
89) “한국수도회 역사-백년의 의미” <가톨릭신문> 1988년 9월 25일 3면;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위의 책(2009), 71-77쪽.

90) 이런 복자수녀회의 특수 사명을 윤형중 신부(1903~1979, 서울대교구 소속, 순교자현양회, 경향신문 창간 주도)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런 행사(시복 축하식 행사)에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가톨릭 순교사료(殉教史料)전시회이다. 복자수녀원은 순교자현양 사상이 골수에 박혀있고, 갖가지 사료며, 박해 당시 형구(刑具)의 모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윤형중, 위의 책, 182쪽).

91) 방상근, 『한국천주교회사』 1, 2009, 341~342쪽.

다. 현재 수녀회가 보관 중인 창설자 방유룡 사제의 기록물과 공동창설자 수녀들의 회원 교육 자료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내면화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창설자 방유룡 사제는 수녀들에게 순교자들의 이름을 부여하여 그들이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각하고 순교자를 현양하는 사명을 지니도록 인식하게 하였다.⁹²⁾



<그림 16> 「복자회 창설 이념」 창설자 방유룡 사제 수기본(1977년 12월 25일)

1977년, 방유룡 사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세계 각 수도회에 보내는 교황의 권고에 따라 수녀회의 창설 이념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하였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 방유룡 사제는 수녀회의 특수 목적을 설명하면서 주석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주) 2. 순교자 현양” 항목에서는 “교회사 연구, 순교자 유물 및 사료 수집”이라고 명시하였고, “주) 3. 우리나라 민족 문화 발전

에 공헌” 항목에서는 “동양적(토착화) 수도 정신을 함양하고 한국 고유 문화를 보존·연구함으로써, 토착화된 한국 기독교 정신을 우리 민족에게 전함”이라고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수녀회의 창립 이념을 회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공동창설자인 윤병현 안드레아(1912~2003) 수녀⁹³⁾와 홍은순 라우렌시오

9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위의 책(60년사), 387쪽.
 93) 윤병현 수녀(안드레아, 마텔, 尹炳賢, 1912.04.27.~2003.06.29.)는 1933년 해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해주성당에서 방유룡 신부를 처음 만났다. 이후 1942년, 방 신부가 주임신부로 있던 개성성당 산하 육영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는 1946년 4월 21일 창설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공동창설자로, 창설자 방유룡(안드레아) 사제와 수녀회 창설 전부터 함께 하였다. 수녀회 창설 초기부터 수도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고, 창설자의 영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순교정신과 형제애에 기반한 전교활동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 여성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1961년 천안 복자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한국 자생 수도회로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당

(1921~2011) 수녀⁹⁴)는 교회가 지향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수녀회의 고유한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순교자 현양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실천하였다. 윤병현 수녀는 복자수녀회의 각 분원 공동체에 보내는 1957년 12월 26일 제2호 공문에 다음과 같이 수록하였다.

순교! 사랑의 극치. 거례의 사랑 때문에 피 흘리신 우리 선조들. 우리는 이 피의 자손입니다. ... 순교는 천주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⁹⁵⁾

윤병현 수녀는 수녀회 공문을 통해 순교자를 “하느님 사랑의 극치”로 표현하며, 수녀회원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닌 복자회 회원으로서 전통문화까지도 함께 보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녀는 “유물 수집이나 예의 범절이나 심지어 놀이까지라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며, 민족정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⁹⁶⁾라는 공문을 통해, 유형문화는 물론 무형문화까지 신앙의 일부로 수용하는 포괄적 문화유산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순교자 유품은 단순한 전시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과 공동체 교육의 중심 도구로 인식되었다. 홍은순 수녀는 「복자수녀회 회사(會史) 초안」에서, 수녀회의 특수 사명이 순교자 현양에 있는 만큼, 창립 초기부터

연한 소명으로 인식하며 힘써 왔다. 1982년에는 오룬대한국순교자기념관을 설립하여 순교자 현양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그 공로로 1983년 교육공로자 표창 훈장을 수상하였다. (오룬대한국순교자박물관, 『마텔과 뿌로마텔-빛의 길 50년의 길』, 2018, 29쪽;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오룬대 순교자현양 특별위원회 면담기록-오룬대, 마텔 관련 증언 인터뷰」, 2015, 398~399쪽.)

94) 홍은순 수녀(라우렌시오, 뿌로마텔, 1921.6.3.~2011.5.14)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공동창설자로, 감리교 목사의 딸로 태어나 개신교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1943년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개성 동문안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였으며,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를 만나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로 개종을 결심하였다. 이후 방 신부가 운영하던 육영학교에서 근무하며 1945년 3월 31일 세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동료교사였던 윤병현 수녀와 함께 방유룡 사제의 수도회 창설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고, 수녀회 회칙 초안 작성에도 기여하였다. 수녀회 창설 이후 홍은순 수녀는 수녀회의 역사 서술과 주요 문헌 정리에 주력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오룬대한국순교자기념관의 설립을 비롯한 유물 수집, 전시, 교육 활동에도 공동 창설자로서 책임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윤병현 수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오룬대한국순교자박물관, 『마텔과 뿌로마텔』, 29쪽;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위의 글, 398~399쪽.)

95) 윤병현, 『마텔 윤병현 안드레아 수녀 어록』, 60쪽.

96) 윤병현, 위의 책, 61쪽.

순교자 관련 사료·사적·유품 수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다.⁹⁷⁾ 그리고 윤병현 수녀는 순교자 현양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은 부족하다 생각하여 수도회원들에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순교자 유품을 수집할 것을 공문을 통해 권고한다.⁹⁸⁾

매달 공문에 찢어진 책도 좋다. (..) 유품이나 책만 수집할 것이 아니라 그때 순교자들은 시골이나 도시에서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생활했을까, 그릇은 어떤 걸 썼고 옷은 어떤 걸 입었을까, 이런 걸 동시에 수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옷가지들도 얻어 오나라, 농이나 반질고리, 인두나 다리미 이런 우리 생활용품들도 다 수집하라고 했어요.⁹⁹⁾

윤병현 수녀는 순교자와 직접 관련된 유품이 아니더라도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장품들도 함께 수집할 것을 복지회 수녀들에게 교육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생겨난 수녀회로서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 즉, 예술, 민속, 풍속, 예절 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에 관련된 유물 수집에도 힘썼음을 엿볼 수 있다.

이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멀고 가까운 옛날의 사료(史料)를 모집하노라 오늘에도 쉬지 않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도 윤형중 신부님께서는 사료가 모집되는 대로 곧 저희들에게 보내 보관케 하십니다. 이 역사적 가치(歷史的 價值)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구왕실(舊王宮) 예식 과장이며 궁내(宮內)에 출입하시는 노인(老人)양반들이며 3-4대

97) 홍은순, 「복지수녀회(福者修女會) 회사(會史) 초안(草案)」, 1996, 40쪽.

98) 한국순교복지수녀회의 공문은 본원 수녀들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로, 1957년 11월 27일 제1호가 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공문에는 수녀회 총장의 담화, 수녀회 관련 행사, 전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순교자 유물과 전통문화 관련 유물 수집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의 발행 일자와 호수이다: <1957년 12월 26일 제2호>, <1959년 12월 25일 제26호>, <1960년 12월 20일 제37호>, <1961년 01월 25일 제38호>, <1968년 10월 25일 제129호>, <1969년 08월 25일 제139호>.

99) 윤병, 홍은순, 「이게 다 기적이예요」『순교의 맥』, 189호, 4쪽(1993).

임금님을 되시는 파파 상궁(尙宮)을 찾아 배우기에 분주합니다.”¹⁰⁰⁾

이러한 접근은 순교자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되살리는 작업이었고,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과 결합된 신앙 공동체의 기억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화유산 인식은 1962년 10월부터 1965년 9월까지 바티칸에서 열린 가톨릭교회의 공식 회의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 Vaticanum Secundum)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공의회는 교회 문화유산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영적, 교육적, 사목적 도구임을 강조하였다.¹⁰¹⁾ 그래서 문화유산을 통해 가톨릭의 가르침과 정신을 가시화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인 선교(mission)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¹⁰²⁾, 이는 곧 가톨릭 신앙이 지역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를 교회에서는 신앙의 토착화 과정이라 말하며 민족문화 안에 스며들 수 있음을 말한다.¹⁰³⁾ 윤병현 수녀는 회원 수녀들에게 “우리는 한국 순교자들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입니다. 피의 후손답게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한국인의 긍지를 가진 한국인, 한국여성”¹⁰⁴⁾이 되길 권고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인식은 수녀회가 단순히 유물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서, 이를 신앙 교육과 공동체 정체성 형성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데까지 이른다. 순교자 유산을 민족문화와 결합하여 해석하는 수녀회의 태도는 곧 신앙의 실천이자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도 깊이 연결되며, 문화유산을 통한 복음화와 신앙의 토착화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모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100) 홍은순,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1956년 4월 21일.

이 자료는 수녀회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홍은순 수녀가 작성한 축사로, 창설 당시의 수녀회 상황과 주요 활동을 회고한 내용이 담겨있어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65, 58항; 교황청 문화재위원회, 「교회 박물관의 사목적 기능(The Pastoral Function of Ecclesiastical Museum)」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24호, 회람, 1쪽(2001).

10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1991, 52항.

103)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 20항.

104) 윤병현, 홍은순, 위의 글, 24쪽.

2.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

1) 초기 유물수집과 순회전시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다. 윤병현 수녀는 유물 수집을 위해 순교자들이 생활하던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남봉리와 미리내(현 경기도 안성시) 등지에 수녀들을 파견하였다. 수녀회는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골동품 상회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지방을 직접 다니며 유물을 수집하는 방식을 택하였다.¹⁰⁵⁾ 윤병현 수녀는 이렇게 수집한 유물들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신앙 교육과 문화 확산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순회전시를 기획하였다. 그 시작으로 1954년 10월, 성모 성년(聖母聖年)을 기념하여 복자수녀회 주관으로 명동 샬트르 수녀원 내 계성유치원에서 「한국 가톨릭 사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¹⁰⁶⁾



<그림 17> 1954년 10월 <한국 가톨릭 사료 전시회> 입구 전경과 전시실

이 행사는 한국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시회라는 점과 장안 한북관(서울 중심 명동)에서 열린 행사기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았다.¹⁰⁷⁾ 수녀회는 이 전시를 시작으로 새남터 성당, 복자여자고등학교, 수녀

105) 윤병현, 홍은순, 위의 글, 4쪽.

106) “가톨릭 사료전시회” <경향신문> 1954년 10월 9일 2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25. 검색)

107) 홍은순, 「복자福者수녀회修女會 회사會史 초안草案」, 12쪽(199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경향잡지』 1040, 247-248쪽(1954).

회 총원, 부산 청학동분원, 부산 대양고등학교 등 주요한 교회 기념이 있는 해마다 순회전시를 하며 순교자 현양과 전통문화 보존을 수행했다.

<표 4>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개최한 전시(1954년~1979년)

보도년일	언론매체명	신문기사 제목과 내용
1954.10.09	경향신문	한국순교복자수녀원에서는 성모성년의 특별행사로 「한국가톨릭사료(史料)전시회」를 8일부터 3일간
1958.09.28	경향신문	순교자 현양회 새남터서 엄수
1960.10.09	가톨릭신문	미사·순교史料(사료) 전시 등으로 현양되는 순교정신
1960.10.01	경향신문	“공동 주최한 「순교사료전시회」(殉教史料展示會)”
1961.11.26	가톨릭신문	釜山서, 복자수녀원이 殉教史料를 展示 “한국복자수녀원 창설 15주년 맞이해”
1961.09.17	가톨릭신문	殉教者顯揚會(순교자현양회)·福者修女院(복자수녀원)서 공동계획 세워
1961.10.02	경향신문	“사료전시회(史料展示會)도 개최”
1961.12.03	가톨릭신문	釜山(부산)서 순교자 유물전시회 성황 “치명복자 유물사료 전시회는 11월 25일부터”
1964.08.29	경향신문	“형극의 발자취” 한국천주교회사 자료전
1966.10.30	가톨릭신문	김대건 신부 사료 전시회 “복자수녀원(서울 청파동2가 38의1)에서는 복자 안드레아 김 신부 순교 1백20주년을 기념, 3일간 전시회를 연다.”
1966.10.28	동아일보	복자수녀원창립20주년 기념전시회
	경향신문	복자수녀원 창설20주년기념 이조의상 및 작품전시회(29일~31일)
1967.12.10	가톨릭신문	부산서 순교백주년 기념 史料(사료) 전시회 “병인년 순교 백주년과 부산교구 설정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대양중공업고등학교에서... 전시된 품목은 순교자들의 유품과 조선시대 의상(衣裳) 및 장신구(裝身具) 1백 2점 등”
1968.10.13	가톨릭신문	6일, 새남터·양화진 복자성당서 시복경축미사 엄수 “복자수도회는 24위의 유물을 위시하여 79위와 대원군의 유물도 전시했는데 ...”
1971.07.06	조선일보	“김대건신부의 일생을 담은 성화전이 8일부터 1주간 국립공보관에서 열린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김신부 순교 12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
1973.10.14	가톨릭신문	복자기념관 모금 성화 전시회 “... 복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김대건 성화전과 바

		사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중앙성당에서 열렸다.”
1976.09.26	가톨릭신문	복자회, 사료 전시회 개최
1976.09.27	경향신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는 복자 김대건 신부 순교 130주년을 맞아...”
1978.10.15	가톨릭신문	순교선열의 발자취를 한눈에 「한국 순교자 유품종합전시」지상 중계 “양화진본당,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
1978.09.03	가톨릭신문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오륜대분원에서는 23~27일 사이 순교자유품 그림전시와 바자회를 갖는다.”
1978.09.08	경향신문	가톨릭, 福者聖月 맞아 多彩 행사
1979.10.07	가톨릭신문	복자성일 보내며, 전국서 순교자현양미사봉헌 “오륜대 순교자기념관에서 사료전시회 및 바자회를 가졌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전시회와 교육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수녀회는 수집된 유물의 체계적 보존 및 학술적 연구를 위해 유물 연구 분야의 권위자들을 찾아 고증을 의뢰하고 전문 교육을 받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속학자이자 한국 복식(服飾) 연구의 선구자인 석주선(石宙善, 1911~1996) 선생을 방문하여 전통 복식과 왕실 유물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¹⁰⁸⁾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속 연구자들과 교수진을 초청하여 유물 감정을 받는¹⁰⁹⁾ 등, 단순한 수집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보존과 연구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녀회는 조선시대 형구(刑具)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를 단순한 역사 유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지닌 순교 신앙의 상징으로 해석하였다. 형구는 순교자들에게 직접 가해졌던 고통의 도구이자, 그들의 굳건한 신앙과 증거의 삶을 드러내는 집단 기억의 매개체로 인식되었다. 이에 수녀회는 점차 사라져가는 형구의 실물을 조사·발굴하고, 문헌 및 실측을 바탕으로 정확한 치수를 산출하여 형구 모형을 재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옥희 수녀는 연구 성과를 「조선시대의 형구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발표

108) “1960년 9월 11일: 同德大學에 有名한 石先生에게 衣裳研究次 마뎀, 뽀로마뎀 다녀 오심”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중요기록집』, 40쪽; “「관모와 수식」 펴낸 복식연구가 石宙善 석주선씨 46년 연구의 마지막 著書저서 출간” <경향신문> 1993년 8월 31일 17면.

109) “1966년 10월 13일, 18일: 고대(高大)박물관 선생(先生)님과 교수 한 분 모셔다 감정 받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중요기록집』, 55쪽.

하며,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정립하였다¹¹⁰⁾. 이와 같이 수집 및 재현된 형구는 서울 교회사연구소, 절두산 순교성지, 경기도 용인민속촌 등지에서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신앙교육과 순교 정신의 계승을 위한 중요한 상징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2) 독자적 기념관 개관: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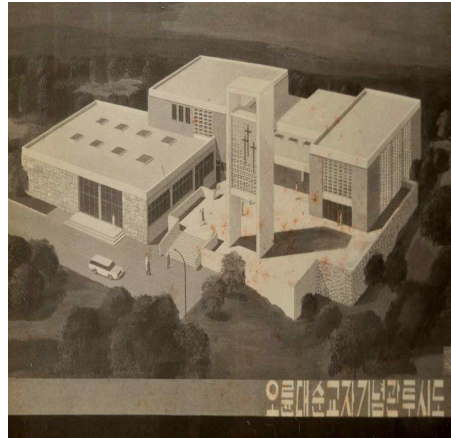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지속적인 유물 수집과 순회전시 활동을 이어가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전시를 위한 전용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순교자기념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윤병현 수녀는 1968년 서울대교구에서 절두산 성지에 순교자기념관이 건립된 것을 보고,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설립할 기념관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부산에 세워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를 바랐다.¹¹¹⁾ 윤병현 수녀와 홍은순 수녀는 기념관을 건립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1967년 부산교구 설립 10주년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분원(청학동) 진출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부산 대양중고등학교와 청학동 복자유치원에서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를 관람한 당시 부산교구장 최재선 주교는 “순교자들의 유적과 유물, 사적을 수집·보존한 것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큰 공로”¹¹²⁾라고 평가하며, 순교자 현양 신심의 정착과 신자 교육을 위해 수녀회를 초청하여 부곡동 오륜대에 기념관을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부산교구로부터 부산 부곡동 오륜대 임야 사용 허가를 토지정리 비용 및 소송비 지불 조건으로 권리 이양받고,¹¹³⁾ 1969년 6월 13일 수녀회 오륜대 분원 신설을 시작으로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10) 김옥희, 「한국천주교회사 연구와 사료史料 수집」『우리복자 우리성인』, 도서출판순교의 맥, 2014, 124쪽; “李朝刑具 연구하는 김옥희 수녀” <경향신문> 1971년 4월 28일 5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25. 검색)

111)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순교자의 후손은 살아있다-오륜대 분원 30년사 화보집』, 가톨릭출판사, 1999, 12쪽.

11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위의 책(오륜대 분원 30년사), 11쪽.

11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60년사』, 184쪽.



<그림 18> 1976년 12월 기념관 부지조성 <그림 19> 기념관 투시도(김성곤 교수 작)

천주교 신자인 김성곤 교수는 순교자기념관과 성당 건립을 위해 헌신하는 수녀들의 모습을 보고, 건립 기금 모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시도를 무상으로 제작해 주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던 수녀회에서는 이를 완성된 설계도로 오해하여 실제 건축 과정에 사용하였다는 일화도 전해진다.¹¹⁴⁾ 1974년,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한국순교자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오륜대 현지에서는 바자회 개최와 후원회 모집 등의 활동을 통해 재원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76년 순교자기념관 및 부속 성당의 기공식이 이루어졌고, 1977년 7월에는 순교자 성당이 우선 완공되었다. 이후 수녀회는 부산 지역 순교자 묘를 오륜대로 이장하는 사업¹¹⁵⁾을 추진하여, 같은 해 9월 19일에 이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기념관 본관은 골조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정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녀회는 1978년 8월 28일, 서울 총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교회사연구소(1971년 설립)를 부산 오륜대

114) 홍은순, “창립 50주년 ‘오륜대 분원 역사’ 정리본(수기)”, 1996년, 6-7쪽.

115)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마뽀와 뿌로마뽀』, 78~81쪽.

로 이전·통합하여 ‘한국가톨릭문화연구소’(소장 김옥희(안나) 수녀)¹¹⁶⁾로 설립하였다. 동 연구소는 가톨릭 교회사 연구, 학술 서적 출판, 학술회의 개최 등 학문적 활동과 더불어, 한국 전통문화 교육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궁중 예절, 전통 다도, 한지 공예’ 등을 교육하는 ‘가톨릭 문화교실’¹¹⁷⁾을 운영함으로써 가톨릭 신앙과 한국 전통문화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소의 활동은 단순한 문화적 시도로 그치지 않고, 기념관 건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재원 마련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공 이후 5년이 경과한 1982년 9월 25일, ‘오룬대한국순교자기념관’이 공식 개관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지속적인 문화·교육적 노력의 결실로 해석될 수 있다.¹¹⁸⁾



<그림 20> 기념관 개관 당시 전시실 <그림 21> 1982년 9월 23일 <조선일보> 7면

116) “기획/특집 교회관련 연구소 탐방” <가톨릭신문> 1987년 5월 3일자 5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1909180116589>

117) 오룬대한국순교자박물관, 『마멜과 뿌로마멜』, 222-243쪽.

연구소 산하에 처음으로 설립된 단체는 ‘성체찬양회’로, 그리스도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 음악을 가톨릭 전례 음악에 토착화하고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연구·보존하기 위해 1988년 10월 28일에 창립되었다. 다음으로 ‘마리아 茶會(현 성모다산회)’이다. 이 단체는 윤병현 수녀의 뚜렷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수녀회 초기부터 중점을 두어온 여성 교육과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1992년 5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누구나 다(茶)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초급반, 중급반, 사범반(전문가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연구소 연구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한국천주교 사상사 1》, 《광암 이벽의 서학사상》, 《한국천주교 여성사 1-2》,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 1-2》, 《최양업신부와 교우촌》, 《신유박해 순교자들》, 《무명의 순교자와 증거자》, 《16세기 동양선교와 마태오 리치 신부》, 《순교자 이순이 루갈다의 삶과 그 영성》, 《중국천주교순교사》, 《한국 가톨릭 문학 문고 1-10》, 《일본 키리시탄 순교사와 조선인》 등 이다.

118) 오룬대한국순교자박물관, 『마멜과 뿌로마멜』, 96쪽.

이 기념관은 전체 2층 규모로 1층에 교회사 관련 유물, 즉 조선시대 형구와 순교자들의 유품, 교회 서적 중심으로 전시하였고, 2층 특별관에는 의친왕비가 기증한 왕실 유물을 전시하였다.¹¹⁹⁾ 이 기념관의 개관은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두 번째로 정식 설립된 기념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며¹²⁰⁾, 부산 지역에서는 최초의 가톨릭 종교박물관으로 지역 종교문화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²¹⁾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을 중심으로 순교자 현양을 위한 유물 전시는 물론, 의친왕비가 기증한 의왕 원유관을 비롯한 의궤, 복식 등 다양한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안전하게 공개하였다.¹²²⁾ 이후 공개된 의왕 원유관과 왕실 유물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문화계의 주목을 받게 되어 1988년 국립중앙박물관 주관 88올림픽 기념 《한국의 미美》 특별전¹²³⁾에 의왕 원유관이 전시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림 22> 1988년 8월 25일 <조선일보> 7면, 의왕원유관 외 다수 전시대어

- 119) 1982년, 순교자기념관의 유물 현황은 1982년 개관 기념으로 보급한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展示圖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40~55쪽에 조선 왕실 유물이 소개되어 있다.
- 120) 한국천주교회에서 최초의 정식 순교자기념관은 1967년 10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절두산순교성지에 건립된 '절두산 순교 기념관'이다. 개관 이후 명칭을 '한국천주교순교자 박물관'으로 바꾸고 2008년 8월 19일,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 121) 1982년 9월 개관 당시 관람객 수는 2,204명이고 꾸준히 증가해서 평균 1만 명을 유지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60년사』, 398쪽.
- 122) 윤병현, 홍은순, 이게 다 기적이예요 『순교의 맥』, 189, 16쪽(1993).
- 123) "88문화행사 주역들" <동아일보> 1988년 1월 8일 6면, "문화올림픽 지상감상" <조선일보> 1988년 8월 25일 7면; "한국 감흥 세계인 가슴마다" <경향신문> 1988년 9월 6일 18~19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15. 검색)

이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5년 10월 18일 《한국복식 2000년 전》을 개최할 때 본 박물관 유물인 원유관을 비롯 왕실 유물 10점을 전시하였다.¹²⁴⁾ 또한 1992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미국 뉴욕 IBM 갤러리에서 개최된 《한국의 미(美): 전통의상 전시》에도 왕실 유물 9점이 출품되어 전시되었다.¹²⁵⁾ 그리고 수녀회는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개관 이후 한국 순교자들과 한국천주교회사를 알리는 전시를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순교자 현양을 위한 목적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왕실 유물과 민속유물도 전시하였다.

3) 박물관 등록과 전문화: 기능 확장과 사회적 역할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순교자기념관이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8년 1종 전문박물관 등록을 추진하였다. 해당 등록을 위해서는 100점 이상의 소장유물이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요건 충족에 있어 가톨릭교회 관련 유물뿐만 아니라, 의친왕비가 기증한 조선 왕실 유물이 주요한 작용을 했다.¹²⁶⁾ 2009년 3월 2일, 본 박물관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고(부산 제6호, 현 등록번호: 부산-시립12-2009-02호),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신앙 재교육의 장으로, 타 종교인과 일반 대중에게는 가톨릭 문화는 물론 그와 연관된 조선 왕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은 종교박물관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통문화를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¹²⁷⁾를 통해 그 기능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124) 순교자박물관 수신공문: 국립민속박물관 <문서번호 전시 86343-198(1995.08.14.)>; “우리옷 아름다움 고대~현대 한눈에” <한겨레> 1995년 10월 19일 11면; “민속박물관 「한국복식2000년전」개막식” <동아일보> 1995년 10월 19일 25면.

125) “한국의 미 전통의상 전시” <경향신문> 1992년 4월 2일 9면;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발신공문: 해외 공보관장(1991.12.27.).

126) 부산시등록박물관 신청서류 참조: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발신공문 문서번호 오륜 08-09(2008.09.23.)

127) 전시회 관련 기사: “조선시대 왕실·가톨릭 용서·화해의 손 맞잡다” <충청타임즈> 2012년 9월 3일; “눈물의 역사,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다” <국제신문> 2012년 8월 24일; “문화재·의왕 원유관’전시회” <가톨릭평화신문> 2013년 11월 12일; “병인년 순교150주년 기념 특별전” <가톨릭신문> 2016년 9월 4일 3면;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탄압했지만...” <국제신문> 2017년 6월 9일 11면.

<표 5> 조선 왕실 유물을 활용한 특별전시와 도록

			
2012	2013	2016	2022

<표 6>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전시 도록 현황

	연도	전시 도록	
1	2012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기증유물특별전	「皇家의 기품-天主教와 皇家의 만남」
2	2013	「의왕 원유관」국가지정문화재 기념 특별전	「의왕 원유관, 새롭게 빛나다 - 조선의 쓰개와 머리장신구」
3	2014	한국순교자 124위 시복 기념 특별전	「우리 복자 우리 성인」
4	2015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막 50주년 기념 특별전	「祭衣casula-영원한 사랑, 순교의 옷」
5	2016	병인년 순교 150주년 기념 특별전	「병인년 햇불-조선왕조와 천주교」
6	2017	최양업 신부 가경자 선포 1주년기념 특별전	「길 위의 사제 최양업」
7	2018	무진박해 부산순교자 150주년 기념 특별전	「마멜과 뿌로마멜」
8	2019	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특별전	「기해 1839」
9	2020	조선왕조 의궤 보물 지정 기념	「대한제국기 의궤 - 의왕영왕책봉의궤 추봉책봉의궤」
10	2021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및 유네스코 세계인물 선정기념 특별전	「내면의 목소리를 신앙의 목소리로 -김대건」
11	2022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기증품」

특히 조선 왕실 관련 문화유산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

실 속에서, 본 박물관은 지역사회에 조선 왕실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회적 의의를 높였다. 현재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은 2022년부터 오륜대순교자성지 개발 공사의 영향으로 임시박물관으로 유물을 모두 이관하고 학예실을 운영하며 전시를 제외한 기본적인 박물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왕실 예술품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조들의 예술적 역량과 미의식을 조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의궤를 비롯한 기록문화 유산 등 주요 소장품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다.¹²⁸⁾ 박물관의 이러한 성장은 2009년 전문박물관 등록이라는 외적 성과와 더불어, 전시 기획 및 구성 측면에서도 내적 성장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 전시는 소장품의 양적 제시와 교육적 전달에 집중되었으나, 이후에는 전문 학예 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¹²⁹⁾을 통해 유물에 대한 해석이 심화되었고,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연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 전시 기획의 수준이 제고되었다. 더불어, 2009년부터 추진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노력의 성과로, 2013년에는 ‘의왕 원유관’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6년에는 ‘조선 왕실의 의궤’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는 박물관의 소장유물이 국가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은 사례로, 박물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는 2007년 제정된 정의에서 박물관을 “사회와 그 발전에 봉사하고, 연구·교육·향유의 목적으로 인간과 그 환경에 관한 유·무형 유산을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하는 비영리 영구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2022년에 이르러서는 “박물관은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간이며, 문화유산을 윤리적·공공적 책임

128) “대한제국 보물창고, 부산 순교자박물관 재조명” <국제신문> 2013년 3월 31일 20면; “부산박물관 어울림 교육 한마당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2016년 5월 18일.

129) 2009년 12월 21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가입기관(제163호)이 되어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기관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2009년 4월 25일 한국박물관협회에 등록(회원번호 2009-22)하고 타 기관들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박물관 경력인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전문학예사 인력 지원사업도 하게 되었다.

아래 관리하고, 비판적 담론과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장소”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¹³⁰⁾ 이러한 정의의 변화는 박물관이 단순한 유물 보존소를 넘어 사회적 역할, 교육적 기능, 문화적 해석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적 전환을 거듭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박물관에 대한 정의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오륜대한민국순교자박물관의 역할 변화 또한 그 흐름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륜대한민국순교자박물관은 한국천주교회 순교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전통문화 보호와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복음 전파와 순교자 현양을 통해 신앙의 가치를 전달하는 종교적 기능에 더하여,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문화유산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녀회의 사명 수행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오륜대한민국순교자박물관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특수 사명이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이다. 이처럼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 활동은 박물관을 통해 유물의 보존과 전시를 넘어,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의미 부여,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문화적 연계로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구술자료로 본 의친왕비 유물의 종교 유산화 과정

1) 정환희 구술자료의 제작 배경과 목적

박물관의 소장 유물에 대한 공개적인 가치 평가의 과정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박물관의 핵심 기능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평가는 유물의 역사적·문화적 의의를 객관적으로 정립하고, 향후 학술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박물관이 기념관에서 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된 이후, 그 위상에 부합하는 학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의친왕비 기증 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사업¹³¹⁾을

130) 이정은, ICOM의 새로운 박물관 정의와 한국 공립 박물관의 지향점 모색 -Museum Activism 관점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3(2), 35~36쪽(2024).

131) 이 사업은 200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에 총 4건의 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로 신청하는 공문(문서번호 오륜09-10-21)을 제출하였다. 그 다음해인 2010년 1월 부산시는 관계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 결과 가결되어 문화재청

추진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추진은 의친왕이 사용한 진품 유물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 곧 그것이 기증자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물의 소장 경위나 기증과 관련된 명확한 기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박물관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자료가 부족했다. 이에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학술적 신뢰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술자료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 구술자료 제작이 가능했던 것은 의친왕비의 친정 조카인 김종순¹³²⁾ 교수와의 인연 덕분이었다.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은 2009년 한국박물관협회 소속 6개 박물관이 연합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오색창연> 전시¹³³⁾에 참여한다. 이때 김종순 교수와 의친왕의 5녀 이해경 여사¹³⁴⁾를 함께 만난다. 특히 이 전시를 계기로 이해경 여사는 전시 유물인 ‘의왕 원유관’에 큰 관심을 보이며 2009년 11월 11일 김종순 교수를 동행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고, 그동안 잘못 표기되어온 의친왕비의 사가(私家) 이름이 김덕수(金德修)¹³⁵⁾임을 명

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문화예술과-13115(2010.9.6.)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은 시지정 문화재 신청을 철회하고 국가지정 신청만 진행했다. 이후 3년이 지난 2013년 1월 23일에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원유관」의 지정가치 검토를 위해 박물관 방문하였다.(문화공보과-1073(2013.01.16.)) 유물을 심사한 위원들은 「원유관」이 진품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박물관이 소장한 몇 점의 사진만으로는 소장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전傳의왕 원유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박물관이 소장 경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찾게 되면 지정 예고 전까지 보낼 것을 알려왔다. 입증 자료 제출이 늦어져 2013년 4월 12일 문화재청 공고 제2013-141호에 「전傳의왕 원유관」으로 지정예고됨을 알려왔다. 이후 박물관에서 소장 경위 증명 자료가 첨부된 ‘명칭변경 요청’ 공문(오륜13-05-2)을 제출하여 2013년 6월 11일 「의왕 원유관」이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되었다.(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317(2013.6.11.)호)

132) 김종순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명예교수 (1987년 2월~2004년 8월 재직)

133) 전시기간: 2009.11.03.~11.15. 전시장소: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 II.

134) 이해경(1930.05.04.~현재), 왕실명 공, 아명 길상, 생모 김금덕, 의친왕의 5녀. 뉴욕 거주. 1954년 의친왕의 자녀 중 유일하게 의친왕비의 호적에 정식 입적. (이준, 「사동궁 사람들 이야기」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기록과 기억』, 경운박물관, 2022, 149쪽.)

135) 의친왕비의 본명에 대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1964년 의친왕비의 별세 기사를 다룬 신문사마다 ‘김수덕金修德’으로 표기하고 있고 가톨릭 세례대상에는 ‘김숙金淑’으로 표기되어 있다. 의친왕의 5녀 이해경 왕녀의 저서에서는 ‘김덕수金德修’로 표기하고 있다. 여러 기록 자료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① 호적 기록: 생년월일 1878년 11월 27일 이름은 ‘김덕수’로 표기.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 [http://www.imperialhouse.kr/sub02/sub02_01_03_02\(2025.02.03.검색\)](http://www.imperialhouse.kr/sub02/sub02_01_03_02(2025.02.03.검색))

② 가톨릭 세례문서: ‘김숙’표기, <천주교 가회동 성당 세례 대장>

확히 확인해 주었다. 첫 만남 이후 김종순 교수는 2013년에 순교자박물관 특별전(황가의 기품-천주교와 조선왕조)¹³⁶⁾ 관람을 계기로 수녀회 측의 요청을 받고 문화재지정사업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그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이해경 여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해경 여사는 기증 당시 도미(渡美)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었다. 대신 이해경 여사는 의친왕비의 세례 사진에 함께 등장하는 이희자(의친왕의 6녀)¹³⁷⁾와 숙경(의친왕의 손녀)¹³⁸⁾을 언급하며, 이들과의 접촉을 제안하였다.¹³⁹⁾



<그림 23> 의친왕비 세례기념 사진¹⁴⁰⁾



<그림 24> 이해경 여사와 김종순 교수 2009년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방문

③ 신문 기사: '김수덕'표기, <동아일보, 1964.01.20. 7면 기사>, <경향신문, 1964.01.15. 6면 기사>, <조선일보, 1964.1.15. 7면 기사>

④ 이해경 저서: '김수덕'표기,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 유아이북스, 2023, 269쪽.

⑤ 전종현, 의친왕비 관련 오류 정정 칼럼:

우리황실사랑회 <https://cafe.daum.net/1392royal/3luQ/166>(2025.02.03.검색)

136)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기증 유물 특별전 “皇家의 氣品-천주교와 조선왕조”, 전시기간: 2012.09.03.~10.31, 전시장소: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2층 민속실.

137) 이희자(1940.5.13.~2022.8.11.), 왕실명 장, 아명 희자, 생모 김혜수 의친왕의 6녀, 천주교 세례명 카타리나.(이준, 위의 글. 149쪽).

138) 의친왕의 넷째 왕녀 이숙의 딸로 이숙경, (이숙의 호적명은 이해숙(1920.4.18.~1991), 계동궁 입적.) 천주교 세례명 로사. (이준, 위의 글. 149쪽).

139) 인터뷰 영상 전사본 7쪽.

140) 1955년 8월 14일 서울 가회동성당에서 의친왕비가 세례를 받고 찍은 기념사진, 의친왕비 옆 두 여학생이 의친왕의 6녀 이희자와 손녀 이숙경(의친왕의 4녀 이해숙의 딸), 사진 출처: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결국 김종순 교수는 사촌인 김종옥 씨(의친왕비의 친정조카)¹⁴¹⁾에게 연락해 이 문화재지정사업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정환희 여사를 소개받는다.¹⁴²⁾ 정환희 여사는 의친왕비를 가까이에서 보필한 인물로 유물 기증 현장에도 있던 유일한 증언자다. 그녀는 기증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의친왕비의 명에 따라 기증 사실을 비밀로 지켜야한다는 의무감에 고민하며 인터뷰를 거부한다. 그러다 김종순 교수와 김종옥 씨의 간곡한 설득에 힘입어 2013년 3월 30일에 마침내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이 인터뷰는 박물관 소장 유물의 역사성과 기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문화재 지정 신청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공식적인 구술자료다. 이와 동시에 이 자료는 기증자의 신앙적 정황과 수녀회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초석과 같은 단서로서 종교유산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정환희 구술자료의 내용 분석

(1) 인터뷰 장소와 참석자

인터뷰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아파트 김종옥 씨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는 의친왕비의 질부인 정환희 여사, 조카이자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종순 교수, 그리고 또 다른 조카인 김종옥 씨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의친왕비의 친정 쪽 가족들이다.

이 인터뷰는 김종순 교수,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관장 배선영 수녀, 본 박물관 문화해설사 이구섭 선생¹⁴³⁾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정환희 여사가 유물의 기증 경위에 대해 핵심적인 증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김종옥 씨와 김종순 교수가 관련된 배경이나 추가적인 사실을 보완하여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인터뷰는 영상 촬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다섯 명이 거실 소파에 착석한 채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촬영에는 김종옥 씨의 딸인 이경자 교수와 정환희 여사의 딸이 협조하였으며, 이들은 인터뷰 영상 후반부에 인사를 나누는 장면

141) 이해경,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 유아이북스, 2023, 170쪽.

142) 인터뷰 영상 전사본 8쪽.

143) 이구섭(1949.01.27.~현재), 순교자박물관 문화해설사로 2022년 2월까지 근무.

등장한다.

해당 인터뷰는 비디오로 촬영된 영상물을 디지털영상 파일로 전환하여 순교자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 파일의 상영시간은 1시간 5분 50초다. 실제 인터뷰한 시간은 두 시간으로¹⁴⁴⁾ 되어 있지만 보관된 파일 자료는 축소 편집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 파일이 축소된 이유는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질문과 응답 사이 공백시간, 비공개된 내용, 겹치는 이야기 등을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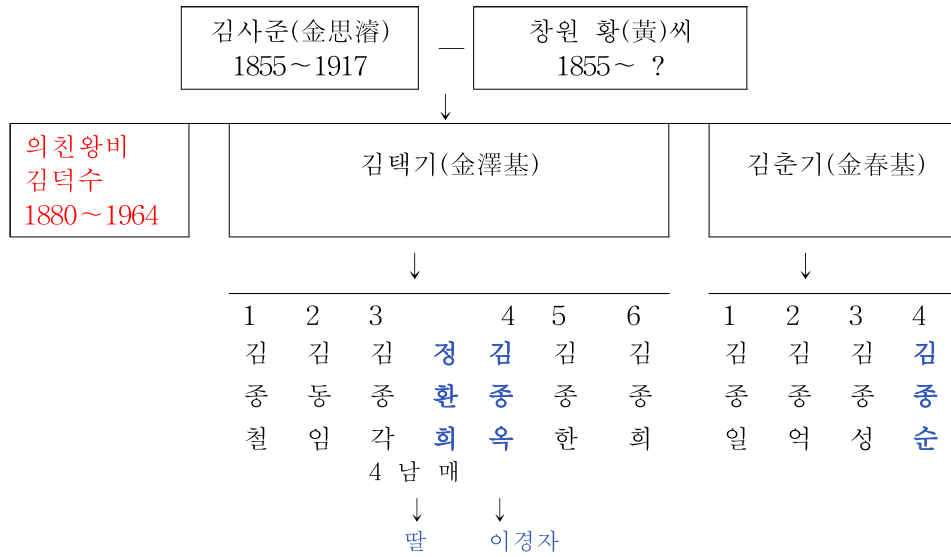
<그림 25> 2013년 김종옥 자택에서 정환희 여사 인터뷰하는 모습¹⁴⁵⁾

의친왕비와 참석자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종순 교수가 설명한 의친왕비 가계도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144)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발신공문 오륜13-05-2: 문화재청에 제출한 “전 의왕 원유관(傳 義王 遠遊冠)명칭 변경 요청”건 공문 붙임 자료 1번(「의왕義王 원유관遠遊冠」기증 증언 채록 경위서).

145) 2013년 3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김종옥씨 자택에서 정환희 여사 인터뷰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왼쪽부터 김종옥, 배선영 수녀, 정환희 여사, 김종순 교수, 이구섭.

<표 7> 의친왕비 가계도¹⁴⁶⁾



◇김비(金妃)의 80세 생일날 모인 의친왕의 후손들.

<그림 26> 의친왕비의 80세 생일날 모인 친척들, <조선일보> 1999년 10월 1일 23면¹⁴⁷⁾

- ① 김종각¹⁴⁸⁾: 정환희 여사의 남편(의친왕비 남동생 김택기의 차남)
- ② 이수길: 의친왕의 5남

146) 구분하기 위해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사람이 인터뷰 동석자이다.
 147) <조선일보> 1999년 10월 1일 신문사진을 보며 김종옥 씨와 김종순 교수가 의친왕비의 친정 가족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알려준 자료다.
 148) 의친왕비의 별세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1964년 1월 15일자 기사에서는 칠궁에 마련된 빈소의 상황을 설명하며, “친정 조카인 김종각(金鐘珪) 씨 사형제도 모두 와있었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③ 의친왕비

④ 김종철: 의친왕비 남동생 김택기의 장남

⑤ 김동임: 의친왕비 남동생 김택기의 장녀

(2)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 분석

인터뷰의 내용 구성은 김종순 교수와 배선영 수녀의 사전 협의로 5가지 질문으로 집약했고 인터뷰 형식은 자유로운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인터뷰 영상 전사(轉寫)본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재구성하였다. 정환희 여사 증언에 대한 사실 검증을 위해 당대 신문기사와 수녀회 내부 기록물을 교차 검증하며 비교 분석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①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정환희 여사가 의친왕비를 어떠한 경위로 보필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김종순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종순 교수는 정환희 여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녀가 의친왕비를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보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질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Q1. 의친왕비를 어떤 연유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정환희 여사는 입궁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40년에 의친왕비의 조카 김종각 씨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친왕비가 궁으로 불러 ‘궁으로 들어와 살아라’고 한다. 의친왕비가 친 자식이 없어서 정환희 여사를 수양딸같이 의지하려고 궁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사는 의친왕비를 끝까지 보필했고 왕비가 사망한 뒤 삼년상까지 다 치르고 궁에서 나왔다. 그는 의친왕비를 가까이에서 돕는 측근으로서 왕비의 거처가 옮겨질 때마다 필요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처리했다고 한다.

42년에 사동궁(149)으로 들어갔어요. 그땐 사동궁에 계셨으니까, 해

방 후에 사동궁에서 나왔잖아요.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때 금곡 재실¹⁵⁰로 가셨어요. (...) 몇 명만 데리고 별궁(안국동)¹⁵¹으로 들어간 게, 마음으로 또 불편하죠, 넷째가 산을 팔아먹었어 몰래. 그래서 거기서 피해 가신 게 화양리, 화양리가 어디냐면 전하 어머니, 건공 어머니 묘소¹⁵²(...) 부총리(장면) 도움으로 칠궁¹⁵³으로 수리하고 들어갔어요.”¹⁵⁴

시대의 격변을 살아야 했던 의친왕비의 불안정한 거취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정환희 여사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취 문제는 앞서 살펴본 의친왕비의 생애에서도 다루었다. 몰락한 황실의 일원으로 겪어야 하는 냉대 속에서 왕실 재산을 두고 다투는 후손의 모습마저 지켜보아야 했던 의친왕비의 생활고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¹⁵⁵ 정환희 여사는 국가에서

149) 사동궁(寺洞宮)은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6번지 일대에 있었던 대한제국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사저이자 의왕부(義王府)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사동궁> (2025.04.04.검색))

150) 금곡 재실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대한제국 고종과 명성황후, 순종과 순명효황후·순정효황후의 능이 있는 홍유릉을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namyangju.grandculture.net> (2025.04.04.검색))

151) 안국동별궁(安國洞別宮): 고종 17년인 1880년 지금의 서울 풍문여고 터에 세자인 순종의 가례(嘉禮: 왕, 왕세자 등의 혼례나 즉위, 책봉 의식)를 치르기 위한 시설로 지어졌다. 1882년 순종과 정비인 순명효황후, 1907년 순종과 계비인 순정효황후의 국혼이 치러졌다. (대한황실문화원 <http://www.imperialhouse.kr> (2025.04.04.검색))

152) 이건공어머니묘는 순명효황후 묘가 있던 유강원 근처로 현재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1955년 의친왕의 초장지이고 1965년에 의친왕묘가 생모 귀인장씨의 묘와 함께 서삼릉 권역으로 이장되었고, 귀인 장씨의 묘는 2009년에 홍유릉으로, 의친왕 묘는 1996년에 의친왕비와 함께 홍유릉에 함장되었다.

(국가유산청/새소식/보도/설명 <https://han.gl/abNnz> (2025.04.04.검색))

153) 칠궁(七宮)은 조선의 왕들을 낳았으나 왕비로 책봉되지 못한 후궁 7인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현재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청와대 내)에 위치해 있다. 본래는 ‘육상궁’이라 불렸으나,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 엄씨를 모시게 되면서 ‘칠궁’으로 불리게 되었다. (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 <https://royal.khs.go.kr> (2025.04.06.검색)); 인터뷰 영상 전사본 3-4쪽.

154) 인터뷰 영상 전사본 3쪽.

155)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의친왕궁은 어디로" <대한일보> 1948년 9월 14일; <조선중앙일보> 1949년 2월 20일; "사기에 걸린 이강공" <한성일보> 1947년 4월 2일 2면; "榮華도 泡沫로 사라진다 幻想만 남은 李王家" <남조선민보(南朝鮮民報)> 1949년 2월 13일 2면.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2025.04.25. 검색)); "왕족이 협잡배와 결탁! 구왕궁재산 매각" <경향신문> 1953년 5월 10일 2면; "七宮으로 돌아온 金妃" <경향신문> 1961년 6월 13일 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25. 검색)); 이해경, 위의 책,

의친왕비에게 지급하는 관리비를 비롯해 관공서 업무, 방문객 접대 준비 등¹⁵⁶⁾ 모든 일을 떠맡아 하며 왕비의 노년을 함께 보냈다고 회고한다. 김종순 교수는 정환희 여사의 이런 행적을 ‘왕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비서, 사무장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설명을 덧붙였다.¹⁵⁷⁾ 그리고 의친왕비가 1964년 1월 14일 칠궁에서 별세한 후¹⁵⁸⁾에는 3년간 상복을 입고 상을 치른 뒤, 1967년에 궁중 생활을 마무리하였다.¹⁵⁹⁾

②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에서 배선영 수녀는 의친왕 관련 유물의 소장 경위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는 당시 순교자박물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해당 유물을 직접 기증받았던 공동창설자 윤병현 수녀와 홍은순 수녀로부터 구술로만 전해 들은 바 있다. 따라서 왕실 유물이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전달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경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자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Q2. 의친왕가 유물이 어떻게 수녀회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환희 여사는 의친왕가 유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복자수녀회로 이관하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의친왕가 유물들은 의친왕비가 각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왕비는 정환희를 통해 일부 유물을 선학원으로 이관하도록 한 반면, 이해경(2023)의 저서에 따르면 가족사진과 훈장 등은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¹⁶⁰⁾ 이와 같은 행보는 의친왕비가 특정 유물에 대해 각별한 가치를 부여

280쪽.

156) 인터뷰 영상 전사본 12-14쪽;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왕가(李王家)의 후예(後裔)” <동아일보> 1962년 2월 10일 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25. 검색))

157) 인터뷰 영상 전사본 15쪽.

158) “칠궁(七宮)서 84세 일기(一期)로 사양왕가(斜陽王家) 비극(悲劇)의 상징 의친왕정비(義親王正妃) 김수덕(金修德)씨 별세(別世)” <경향신문> 1964년 1월 15일 6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25. 검색))

159) 인터뷰 영상 전사본

160) 이해경, 위의 책, 50쪽.

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당 유물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1950년에 갑작스레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불교 신자였던 의친왕비는 자신보다 먼저 불교사원인 선학원에 이 유물들을 이관하도록 명을 내렸고 수복 이후에도 제일 먼저 찾아오도록 지시했다¹⁶¹⁾고 한다. 이후 의친왕비는 깊이 의지하던 장남 이건(李鍵)이 이혼하고 한국에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¹⁶²⁾을 접하고 큰 실망과 심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시기에 안국동별궁에 거주하던 이복홍(우르슬라, 1902~1996)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로 개종하기에 이른다.¹⁶³⁾ 정환희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복홍은 6.25전쟁으로 집을 잃은 뒤, 1953년 문화재관리국 직원이던 아들 주선의 도움으로 안국동별궁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의친왕비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이후 이복홍은 의친왕비의 천주교 입교를 도왔으며, 세례 대모(代母, Godmother)로서 신앙생활을 이끌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서울 가회동 성당 전교회장이자 복자수녀회 외부회 회원으로 활발한 전교 활동을 펼쳤다. 그는 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활동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복자수녀회가 왕실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인물이다.¹⁶⁴⁾

161) 인터뷰 영상 전사본 5-6쪽.

162) 이건(1909.10.28.~1991.12.21.)의 아명은 용길, 생모는 수관당 정씨이다. 1931년 10월 일본인 마쓰다이라 요시코와 혼인하고 요시코와 이혼 후 1955년 3월 일본 귀화했다. (이준, 위의 글, 149쪽); 이방자, 이건, 『제일 영친왕비의 수기, 부: 왕가의 낙조』, 1960, 116-117쪽; 이방자, 『세월이여 왕조여-조선조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회고록』, 사회복지법인 명휘원, 2012, 230-231쪽.

163) 인터뷰 영상 전사본 7쪽.

164)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외부회 회원지원서 NO. 2」; 「창설 50주년 본사 자료 초안(厚謝후사)1974.03.15.~1996.04.21」, 11쪽.



<그림 27> 1957년 3월 제1회 외부회 착복식(붉은 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이복홍이다.)

의친왕비는 개종 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외부회 회원인 이복홍을 통해 수녀회 공동창설자 수녀들과 만남을 갖고 자주 왕래하며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¹⁶⁵⁾ 그러던 어느 날 직접 수녀를 불러 유물을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 수양딸 아무개 수녀님한테 이거를 전하시면서, 전하가 쓰시던 거고, 전하가 입으시던 의대니까, 이것은 아무도, 전하 후손이라고 맡아드님이 (...) 세상을 떠났으니까 수녀님이 영구 보존해라, 그 대신 출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거라.¹⁶⁶⁾

이 증언 중 “전하 후손이라고 맡아드님이 (...) 세상을 떠났으니까”라는 발언은 의친왕의 맏아들 이건과 이우를 전하의 후손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⁷⁾. 이우(李鏞, 1912~1945)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원폭으로

165)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녀님이 가져온 계란 한 줄” <가톨릭평화신문> 2015년 10월 6일.

166) 인터뷰 영상 전사본 9쪽.

167) 인터뷰 영상 전사본 4쪽. 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義親王 相續 싸움 4년만에 매듭” <조선일보> 1970년 7월 2일 7면; “4年만에 3男鎗씨 勝訴 義親王家系 상속 싸움 매듭” <매일경제> 1970년 7월 2일 7면; “28年 만에 살짝 다녀간 王

죽고, 딸아들 이건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건은 1947년에는 모모야마 겐이치로 개명하였고, 1951년 요시코와 이혼한 뒤 1955년 3월,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다른 해석으로는 진하(의친왕 1955년 별세)가 죽고라고 해석될 수 있다.¹⁶⁸⁾

정환희 여사는 의친왕비의 수양딸인 수녀에 대해서는 서울 청파동에 위치한 복자수녀원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로 기억되나, 구체적인 성명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의친왕비가 의친왕의 다른 자녀들에 의해 유물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해당 유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으로 수녀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녀는 의친왕비가 자신에게도 기증 사실에 대해 절대 비밀로 할 것을 명하셨다고 한다.

이거 절대 비밀이다. 왜 그러냐면 후궁서부터 자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이제 천주교로 갔어요 모두. 너나할거없이, 계동집이고 뭐고 다 천주교거든. 그니깐 혹시라도 그거 받았다는 소문날까봐 무덤까지 가져가라. 또 나는 운반한 죄로 ‘너 입밖에 내면 안 된다. 너도 무덤까지 가져가거라.’ 그래서 여태까지 극비로 내려온 거죠.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하나,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나.¹⁶⁹⁾

정환희 여사는 이 기증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인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家後孫” <조선일보> 1970년 5월 5일 7면.
168) 하신혜, 위의 글, 2013. 20쪽.
169) 인터뷰 영상 전사본 7쪽.



<그림 28>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총원에 의친왕비 방문.170)

③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은 가톨릭 수녀인 배선영 수녀가 천주교 신자였던 의친왕비의 종교적 삶에 주목하며 제기한 것이다. 의친왕비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탐구하고자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Q3. 천주교 신자로서의 의친왕비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의친왕비에게 천주교를 전교한 사람은 안국동별궁에서 거주하는 이복흥이고 그는 천주교 가회동성당 전교회장을 맡을 정도로 신앙 전파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이복흥의 영향으로 의친왕비는 1955년 8월 14일 서울 가회동성당에서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박병윤(토마스, 1927~2002)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때 세례 대모가 이복흥이었다. 의친왕은 1955년 8월 9일에 비오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¹⁷¹⁾ 정환희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의친왕비가 먼저 천주교 신앙에 뜻을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70) 1950년대,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총원)에 의친왕비가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수녀원 앞 정원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속 앞줄 좌1 의왕친비 김덕수(마리아), 좌2 이복흥(우르술라), 뒷줄 좌1 마텔 윤병현(안드레아) 수녀, 좌2 뿌로 마텔 흥은순(라우렌시오) 수녀, 우1 우인숙(다미아노) 수녀, 우2 김순옥(아우구스티노) 수녀다.

171) <세례성사 증명서> 대장번호: 서울대교구/가회동 본당 1955년 56호· 52호.

의친왕도 이를 수용한 뒤 신앙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한다.¹⁷²⁾

그리고 의친왕비는 거동이 가능하던 시기에는 서울 가회동 성당에 나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는 등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건강 악화로 성당 출석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그녀의 신앙생활은 지속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왕비께서 월요일날이면 진신부님(베드로, 1915~2008)과 교우 몇 분하고 영성체 못 가시니까 영성체 모시고 오시고요(봉성체)¹⁷³⁾, 또 사후에도 살아생전은 생미사고 사후에는 연미사.¹⁷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시더라고요.¹⁷⁵⁾

이러한 일화를 통해 의친왕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임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의친왕비는 생전에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네 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준주성범을 외운다’¹⁷⁶⁾ 말을 한 것도 열심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래서 정환희 여사에 따르면, 의친왕비의 이런 독실한 가톨릭 신앙생활 덕분에 생계가 어려웠던 의친왕의 8남 이경길 씨¹⁷⁷⁾는 생애 말기까지 천주교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172) 인터뷰 영상 전사본 4쪽.

173) 봉성체(communio infirmorum)는 공동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 특히 병자들에게 성체를 모셔 가 영해 주는 행위이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6, 2001, 3569쪽).

174) 미사(missa)는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중심이 되는 종교 의례이다. 생미사: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 연미사(위령미사):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이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5, 2001, 2938쪽);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기록에도 의친왕비가 별세하신 후 기도와 연미사를 봉헌했다는 기록이 있다. “1964년 1월 22일 기록: 1.14. 의친왕비 돌아가셔서 장례 후 3일미사 드려 드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중요기록집」, 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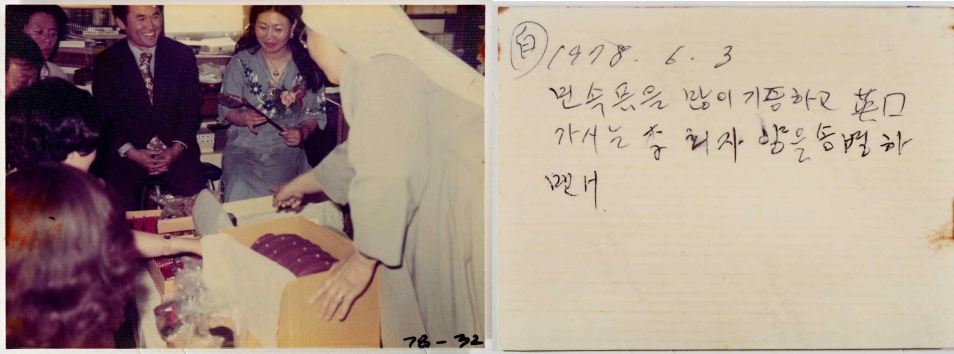
175) 인터뷰 영상 전사본 9쪽.

176) “七宮으로 돌아온 金妃” <경향신문> 1961년 6월 13일 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25. 검색))

“준주성범”은 15세기 라틴어로 저술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신심에 관한 천주교서로 독립된 4개의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저자는 정확하지 않다. 1938년에 연길교구의 차일라이스(Viktorin Zeileis)신부가 라틴어 원본을 번역하여 간행되었고, 1954년에 윤을수尹乙洙신부(윤형중신부의 사촌)가 새로 번역한 『준주성범』이 간행되어 널리 읽혀졌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10, 2004, 7893-7894쪽).

177) 의친왕의 8남 이현, 아명은 이경길(1923.3.30~1996.2.17), 독신, 가족이 없이 경로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평화의 모후원’ 양로원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¹⁷⁸⁾고 한다.



<그림 29> 의친왕의 6녀 이희자 여사 방문(맨 뒷줄 가운데)¹⁷⁹⁾, 사진 뒷면.

④ 네 번째 질문

박물관 해설사인 이구섭 선생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이 소장한 기록자료인 <그림 29>의 사진을 열람한 적이 있다. 이 선생은 유물 기증 사실은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라고 알고 있던 터라 의친왕의 여섯째 딸인 이희자가 어떻게 해서 1978년 수녀회를 방문해 해당 유물들을 직접 확인한 것인지 그 정황이나 관련 배경에 대해 궁금해 했던 것으로 보인다.

Q4. 의친왕의 후손들은 이 기증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베드로신부(81)의 주선으로 90년 8월 천주교 경로수녀회가 운영하는 이 양로원으로 옮겨졌다.” <동아일보> 1996년 2월 21일 31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25. 검색))

178) 인터뷰 영상 전사본 11쪽; “의왕 여덟째아들 이경길옹 양로원서 한 많은 생 마감” <경향신문> 1996년 2월 21일 22면; “朝鮮황손의 쓸쓸한 「양로원 임종」” <동아일보> 1996년 2월 21일 31면; “어느 皇孫의 쓸쓸한 ‘설밀 임종’” <조선일보> 1996년 2월 21일 31면; “고종 손자 양로원서 쓸쓸한 죽음” <한겨레> 1996년 2월 21일 23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5.04.25. 검색))

179) 이 사진은 1978년 6월 3일 촬영된 것으로 현재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기록자료로 보관중이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부산 오륜대에 한국순교자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며 서울 수녀원에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1978년 2월 20일에 부산으로 옮겨 온다. 그래서 이희자 여사는 부산 오륜대 수녀원으로 방문하여 의친왕 왕가 유물을 확인하였다. 이날 촬영된 또 다른 사진에는 동석했던 부산 TBC-TV 동양방송 박금연 양이 유물을 보고 있는 사진이 있어 당시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부산에 기념관 건립계획을 추진하며 홍보용으로 취재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마텔과 뿌로마텔-빛의 길 50년의 기록』 2018, 38-83쪽.)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환희 여사는 후손들이 해당 유물 기증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김종순 교수는 본인이 1973년 귀국한 시점과 맞물려, 경향신문에 실린 의친왕비 관련 기사를 통해 복자수녀회에 대한 정보를 후손들이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자 부산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거리상의 제약으로 직접 수녀원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¹⁸⁰⁾ 즉, 의친왕비 사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물 기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⑤ 다섯 번째 질문

앞선 질의응답 내용이 정환희 여사의 개인적인 기억에 근거한 증언인지, 혹은 인터뷰를 요청한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측의 요청이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발언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박물관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친왕이 실제로 사용한 유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행된 인터뷰였기 때문에, 문화재청 제출 시 증언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었다.¹⁸¹⁾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제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Q5. 인터뷰에 대한 공증 방법 중에 언론매체를 통해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동석한 김종순 교수는 언론매체를 통한 공증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대신 이해경 여사를 통한 공증 방식을 제안하였다. 뉴욕에 있는 이해경 여사는 비록 의친왕비의 유물 기증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없지만, 정환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증언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해경 여사는 1933년, 세 살이 되던 해부터 사동궁에 입궁하여 의친왕비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인물로, 정환희 여사를 오랜 기간 알

180) 인터뷰 영상 전사본 9쪽.

181) 인터뷰 영상 전사본 15쪽.

고 지낸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정환희 여사의 신원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¹⁸²⁾

이상의 구술자료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의친왕비는 격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황실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거처와 생계 유지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노년기에는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에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으며, 해당 지원금 역시 의친왕의 자녀들과 분배하여 사용하는 등 생계유지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와 의친왕비는 안국동별궁 시절부터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수녀회의 외부회 회원이었던 이복홍을 매개로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친왕비는 복자수녀회의 홍은순 수녀를 수양딸로 삼을 정도로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의친왕비가 유물을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하게 된 배경에는 장남 이건의 일본 귀화에 대한 충격과 복잡한 가족사,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 혼란이라는 시대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의친왕비는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친왕의 유품을 기증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나아가 해당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주체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당시 수녀회가 유물 수집 활동과 순회전시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던(1954)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넷째, 의친왕비의 유물 기증 시기는 의친왕비가 천주교에 입교한 1953년 서울 수복 이후부터 1956년 사이로 추정된다. 또한 기증은 단일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친왕 관련 유물을 시작으로 의친왕비의 선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182) 인터뷰 영상 전사본 15~16쪽.

다섯째, 의친왕비는 천주교로 개종 이후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신앙적 실천은 후손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의친왕비의 열심인 신앙생활 덕분에 생계가 어려웠던 의친왕의 8남 이경길 씨가 생애 말까지 천주교회의 지속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3) 종교 유산화 사례의 의의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의친왕비가 기증한 유물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신앙적 배경을 새롭게 해석하여, 이를 종교유산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왕실 유물을 종교기관이 보관한 사례가 아니라, 유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공동체적 기억과 신앙 정체성의 구성 자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녀회는 조선 왕실과 한국천주교회 간의 긴장된 역사적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의친왕이 세례를 받은 사실과 의친왕비가 평생 신앙생활에 헌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천주교로 귀의한 이 사실을 토대로 기증 행위와 기증한 유물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했다. 의친왕은 1955년 임종을 앞두고 세례를 받고¹⁸³⁾ 천주교로 개종하였으며, 당시 그의 입교 동기에 대해 “조상의 종교 박해에 대한 속죄”였다고 하는 내용이 신문 보도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은 <경향신문> 1955년 8월 18일자 1면에는 의친왕의 별세 소식을 다루며, 그가 세례를 받은 경위와 동기를 알리는 보도 내용이다.

그는 눈을 감기 일주일전 가톨릭으로 귀의(歸依)하였다 그는 천주교 신부를 청해 영세(領洗)받기를 원했다. 그는 입교 동기로서 자기의 선조가 천주교를 탄압하여 이조최근사를 피로 물들인 점을 자손의

183) 의친왕의 건강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장면(요한) 박사가 직접 병상을 찾아가 대세를 권하였으며, 자신이 대부 역할도 했다고 정환희 여사는 회고하였다. 그러나 세례 문서 확인 결과, 의친왕은 당시 가회동성당 보좌신부였던 박병윤 신부에게 1955년 8월 9일 '비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고 실제 대부는 임 미카엘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장면 박사를 '대부'로 언급한 정환희 여사의 표현은, 장면 박사가 의친왕에게 지속적으로 천주교 입교를 권유하고 자주 방문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뷰 영상 전사본 3~4쪽.

한 사람으로 속죄하고 싶었다는 것과 그렇게 무자비하게 천주교를 믿는 자를 처단했어도 웃음으로 목숨을 내놓았고 그후 날로 천주교 세력은 번성해가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하는데 그가 죽기 이틀전인 15(十五)일에는 의친왕비 김숙(金淑)여사도 시내 가회동성당에서 마리아란 영명으로 천주교로 입교했다.¹⁸⁴⁾



<그림 30> 1955년 8월 18일 <경향신문> 1면, “스슬히 일생을 마친 이강”

같은 해, 의친왕비 또한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이후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왕실 유물을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닌, ‘화해와 용서’라는 가톨릭적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재해석은 2012년 순교자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전 「황가의 기쁨 - 천주교와 황가의 만남」에서 구체화되었다. 수녀회는 이 전시를 통해, 조선 왕실 유물이 단순히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와 신앙으로 이어진 한국가톨릭 역사 속에서, 박해자 후손이 신앙에 귀의한다는 화해 이야기의 상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전시는 ‘천주교와 왕실의 만남’, ‘역사의 눈물과 용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신앙의 길’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에도 그 메시지가 공유되었다.

184) “왕위계승을 거부-스슬히 일생을 마친 이강” <경향신문> 1955년 8월 18일 1면.

<표 8>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2012년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언론보도

	신문기사 제목	언론매체명	보도년일
1	조선시대 왕실·가톨릭 용서·화해의 손 맞잡다	충청타임즈	2012.09.03
2	눈물의 역사,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다	국제신문	2012.08.24
3	‘천주교와 황가의 만남’ 특별전 할아버지 대원군 박해 속죄하고 천주교에 귀의	경향신문	2012.10.18
4	원유관·흑룡포... ‘황가의 기품’ 눈으로 확인하세요	부산일보	2012.09.13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이러한 해석적 실천은 박물관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통해 종교 유산화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과거의 권위 상징물이 현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실천한 점은, 단순한 유물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종교문화유산의 의미 형성 과정이라 평가된다. 나아가 이 전시는 단지 박물관 내부의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종교적 사명과 연계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수녀회의 유물에 대한 신앙적 재해석은 신앙 교육과 교리 해설, 문화교재 제작 등 실천적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종교유산의 공공화 및 사회적 확산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의친왕비의 기증 유물을 단순히 과거의 왕실 유산으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유물에 담긴 역사적 경험과 상징성을 ‘종교유산’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조선 왕실의 천주교 박해라는 역사적 배경, 의친왕과 의친왕비의 개종과 신앙 실천이라는 서사를 바탕으로, 박해와 화해, 속죄와 신앙이라는 의미 체계를 신앙공동체 안에서 형성하고 이를 전시와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종교 유산화의 과정은 문화유산이 단순히 물리적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 해석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유산’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나아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실천은 종교 기관이 수행하는 문화유산 보존 활동이 신앙적 사명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실천 방식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IV. 결론

본 논문은 대한제국 황실의 일원인 의친왕비 김덕수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한 유물을 중심으로, 해당 유물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며, 종교유산으로 전환해 나갔는지를 고찰한 연구다. 이 사례는 단순한 유물의 보존이나 관리 차원을 넘어서, 종교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수행하는 신앙의 실천으로 문화유산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의친왕비의 기증 유물은 그 자체로 대한제국 황실의 위계와 권위를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복식, 장신구, 서적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의례를 포함한 유물은 당시 황실 의례 체계의 구체적 운영 양상과 역사적 전환기의 정치·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이러한 유물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단지 과거의 역사 상징물로 방치되거나 사적인 소장품으로 머물지 않았다. 의친왕비가 이러한 유물을 종교공동체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기증한 행위는 신앙적 전환의 표징이자, 조선 황실과 천주교 간 오랜 역사적 긴장 관계를 넘어서는 ‘화해와 용서’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유물의 종교 유산화 과정을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고유한 정체성과 실천 활동의 연장선에서 분석하였다. 수녀회는 1946년 창설 이래 ‘순교자 현양’과 ‘민족문화 계승’을 특수한 사명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물의 수집과 전시, 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다. 공동창설자인 윤병현 수녀와 홍은순 수녀는 순교자 유물뿐 아니라, 순교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생활용품이나 전통문화 관련 유물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유형·무형의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문화유산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문화유산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순교의 정신을 가시화하고, 신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은 단순한 사물의 보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기억을 구성하고,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유물에 담긴 상징성과 신앙적 맥락을 수녀회 고유의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황실 유물은 수도공동체의 영성 안에서

신앙의 유산으로 새롭게 재탄생하였다.

실제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유물 수집 초기부터 순회전시, 기념관 건립과 운영, 박물관 등록과 전문화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친왕비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종교적 의미를 함께 조명해왔다. 특히 의친왕비의 유물 기증 경위에 관한 공식 문서나 행정기록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았지만, 당대의 상황을 목격하고 수녀회와 직접 연계되었던 정환희 여사의 인터뷰 구술자료가 있어서 이 유물이 어떻게 해서 수녀회에 소장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이 구술자료는 단순한 증언을 넘어,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유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앙적 태도와 해석의 틀을 적용했는지를 드러내주고 또한 이를 통해 유물의 종교 유산화 가능성과 공동체 신앙속 의미 재구성의 과정을 밝혀주는 중요한 사료로 작용했다.

이러한 유산화의 실천 과정은 단순한 유물의 보존과 전시를 넘어서, ‘대한제국 황가의 유물’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신앙의 여정’이라는 해석의 틀을 연결하여, 의친왕비의 삶과 기증 행위를 신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더 나아가 조선 시대 천주교 박해를 주도했던 왕실의 구성원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유물이 천주교 수도공동체에 의해 종교유산으로 재탄생하는 전환은, 박해자와 피박해자의 역사적 관계를 화해와 기억의 차원으로 재해석하는 상징적 계기가 된다. 특히 2012년 개최된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은 이러한 문화유산 인식이 종교유산화 실천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황가(皇家)의 기품(氣品) - 천주교와 황가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조선 왕실 유물은 단순히 역사적 전시물이 아닌, 신앙의 용서와 화해를 상징하는 복음화의 매개로 제시되었다. 이는 박물관이 단순한 보존의 공간을 넘어, 신앙의 전통을 현재화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은 종교유산을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재해석하고 현재의 언어로 전승하는 종교 유산화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종교문화유산이 단지 종교기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중

교문화유산 연구에 있어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실천은 신앙의 역사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義王英王冊封儀軌』, 『追封冊封儀軌 全』, 《정환희의 인터뷰영상 전사본》
『복자 수녀회 회사 초안 (福者 修女會 會史 草案)』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중요기록집(重要記錄集)-수기본』
『오륜대(五倫臺) 분원사(分原史)-수기본』
『창설 50주년 본사자료 초안 (1974.03.15.~1996.04.21.) 후사(後史)』
《복자회(福者會) 창설 이념(創設 理念)》,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1954년 성헌聖憲》,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외부회 회원지원서》

2. 단행본

-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문화유산의 이해』,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4.
교황 요한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 사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국립고궁박물관,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 문화유산보존 원칙과 합리적 판단』
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_____,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김광식, 『오늘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동』, 시간의 물레, 2013.
김문식, 신병주, 『조선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김진소 엮음, 『고종실록 천주교사 자료 모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1997.
박찬승,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발터카스퍼, 강석진 외, 『순교의 신학적 고찰』, 형제애, 2013.
샤를르 달레, 안응렬, 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상,중,하,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서영희, 『근대 한국의 탄생 대한제국』, 사회평론아카데미, 2025.
세르지오 탄자렐라 외, 『순교의 교회사적 고찰』, 형제애, 2018.
신명호,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 윤병현, 『윤병현안드레아 수녀 어록집』, 가톨릭출판사, 2007.
- 윤택림,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 방법론』, 아르케, 2019.
- 윤형중, 『복자수녀원과 순교자현양회와 나』, 신흥인쇄공사, 1972.
- 이육, 장을연, 김봉좌 외, 『대한제국기 황실 의례와 의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 이육, 장영숙, 임민혁 외, 『대한제국의 전례와 대한예전』, 한국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이방자, 『<朝鮮朝 마지막 皇太子妃 李方子回顧錄> 歲月이여 王朝여』, 에이피프린팅, 2012.
- 이방자, 이건, 『在日 英親王妃의 手記 -附 王家의 落照』, 신태양사출판사, 1960.
- 이영철, 『사료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메티스, 2020.
- 이해경,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 유아이북스, 2023.
- 조광 엮음, 『조선왕조실록 천주교사 자료 모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1997.
-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9.
- 최덕수,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선인, 2005.
-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1권~5권, 2009.
- _____, 『한국가톨릭대사전』 1권~12권, 2001.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면형무아의 여정 60년』, 분도출판사, 2009.
- _____, 『회헌CONSTITUTIONES』, 2021.
- _____, 『순교자의 후손은 살아있다: 오룬대 분원 30년사 화보집』, 가톨릭출판사, 1999.
- _____, 『무아 방유룡 레오 안드레아 신부: 탄생 100주년 기념 화보집』, 분도출판사, 2001.
- 한국역사연구회, 『시민의 한국사-근현대편』 2, 영신사, 2022.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국가 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 황인희, 『실제 기록으로 읽는 구한말의 역사 대한제국 실록』, 유아이북스, 201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3판).

3. 도록

- 경운박물관·의친왕기념사업회, 『의친왕과 황실의 독립운동, 기록과 기억』,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22.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 2013,
-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오륜대 한국순교자 기념관 전시 도록』, 학문사,
1982.
-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皇家의 氣品-天主教와 皇家의 만남』, 순교의 맥,
2012.
- _____, 『의왕 원유관, 새롭게 빛나다』, 순교의 맥, 2013.
- _____, 『병인년 햇불-조선왕조와 천주교』, 순교의 맥,
2016.
- _____, 『마텔과 브로마텔-빛의 길 50년의 기록』, 순교의 맥,
2018.
- _____, 『대한제국기 의궤-의왕영왕책봉의궤, 추봉책봉의궤』,
순교의 맥, 2022.

4. 논문

- 강순제, 「관모연구(Ⅲ) -통천관·원유관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6권 제1호, 1996.
- _____, 「관모연구(Ⅳ) -왕과 세자의 익선관 사모 착용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8권 제1호, 1998.
- 김귀옥, 「구술사 쓰기의 방법과 절차: 사례에 기초한 이론화의 시도」
『구술사연구』, 한국구술사학회, 제1권 1호, 2010.
- 김문식, 「조선왕조의 의궤, 과거와 현재」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
- 김소현, 「의친왕가 유물로 보는 대한제국 전후의 복식제도」 『복식』,
한국복식학회, 73권 제6호, 2023.
- 유은희,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공동 창설자 윤병현 수녀의 순교자 현양에 대한 고찰」

- 『제 3회 무아 방유통신부 영성학술 심포지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19.
- 유상수, 이창현, 「구술사 연구방법을 활용한 한국근현대사」, 2021년 경북대아시아 연구소·한국구술사학회 공동주최 춘계학술대회, 2021.
- 윤택림, 「구술자료 생산 및 활용 현황과 구술사의 공공성(Publicness)」 『구술사연구』, 한국구술사학회, 제14권 1호, 2023.
- 이정은, 「ICOM의 새로운 박물관 정의와 한국 공립 박물관의 지향점 모색 -Museum Activism 관점을 중심으로-」 『순천향인문과학논총』,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3권 제2호, 2024.
- 이정희, 「1900년(광무4) 의왕·영왕 책봉과 《義王英王冊封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권, 서울대학교규장각, 2005.
- 이현주, 「오윤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조선왕조 의궤」 『대한제국기 의궤』, 2022.
- 이호신, 「구술사 연구와 기록관리, 녹취문을 넘어서」 『구술사연구』, 한국구술사학회, 제8권 2호, 2017.
- 임민혁, 「추봉책봉의궤 해제」 『추봉책봉의궤』, 서울역사박물관, 2007.
- 최규리, 이상옥, 「천주교 동산문화유산 분류체계 및 보존관리 방안」 『보존과학회지』,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39권 제4호, 2023.
- 하신혜, 「의왕 원유관 소장부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까지 경위」 『의왕원유관, 새롭게 빛나다』, 2012.
- _____, 「『사절복식자장요람』과 『법복사절복식』을 통해 본 19세기 말 왕실 여성 복식」 『한복문화』, 한복문화학회, 19권 제2호, 2016.
- 한영우, 「대한제국 성립과정과 《大禮儀軌대례의궤》」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규장각, 2001.
- 함한희, 「역사와 과학으로서의 구술사」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한국구술사학회, 제5권 2호, 2014.

5. 학위논문

- 경민정, 「한국 천주교 역사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권미경, 「Historic Urban Landscape Approach에 기반한 진후 복원 문화유

- 산의 가치평가 연구: 양양 디모테오 순례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문수, 「천주교 건축유산의 수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김경혜, 「서울 천주교 역사유적지의 세계유산적 가치」,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김정찬, 「내포지역 천주교 문화유산 활용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문화유산
대학원, 2019.
- 김효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송란, 「천주교 종교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송영찬, 「중첩의 개념을 적용한 천주교 수도회 박물관 계획」,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 신지철, 「한국천주교 문화유산의 가치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_____, 「한국천주교 "교구박물관" 설립의 유용성 연구」, 인천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이민휘, 「전주지역 종교문화유산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임송, 「서울국제순례길의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9.
- 유지선,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장성민, 「인천 답동 및 강화 성당의 현황과 보존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정윤정, 「한국 교회문화유산 확장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인천가톨릭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최영면, 「한국천주교 성물박물관의 교육적 활동에 관한 연구」, 인천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하상균, 「대구·경북의 근대 성당 건축에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한수진, 「근대기 대구경북 성당건축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6. 정기간행물

배선영, 「한국순교복자수녀회와 의친왕 관련 유물」 『순교의 맥』, 제221호, 2023.

윤병현·홍은순, 「이게 다 기적이예요」 『순교의 맥』, 제189호, 1993.

7. 참고 사이트

국가유산청 <https://www.khs.go.kr>

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

<https://royal.khs.go.kr/ROYAL/contents/R107010000.do>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index.do>

네이버 뉴스라이브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대한황실문화원 <http://www.imperialhouse.kr>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main.do>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사동궁>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조선왕조_『의궤』

서강대학교/충동문화 <https://www.sg-alumni.org>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namyangju.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CBCK <https://cbck.or.kr/Documents/Zine?gb=year&search=1954>

부록

1. 제목: 정환희 여사의 의친왕비 유물 기증에 관한 인터뷰 전사본
2. 자료 정보 요약

- 1) 인터뷰 장소: 김종옥 여사 자택
서울시 영등포구 00 **아파트 (00동 00호)
 - 2) 인터뷰 일자: 2013년 03월 30일 10:00 - 12:00
 - 3) 인터뷰 대상
 - 정환희 여사: (1924년 3월 10일) 의친왕비의 질부(김택기의 차남 김종각의 처)
 - 김종옥 여사: 의친왕비의 남동생 김택기의 차녀
 - 4) 인터뷰 진행자
 - 김종순 교수: 의친왕비의 남동생 김춘기의 장녀(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
 - 배선영 수녀: 전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2대 관장.
 - 이구섭 선생: 전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문화해설사(2022년 2월까지 근무)
 - 5) 대화 동석자: 김종옥 여사의 女(이경자 교수- 전 이화여자대학교)
정환희 여사의 女(인적 사항 미확인)
 - 6) 형식: 영상(디지털 파일,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 7) 인터뷰 영상 전사자: 필자
- ** 인터뷰 내용상 본 연구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3. 전사 내용

김종순 교수: 의친왕비를 가까이에서 모셨고 돌아가시고는 삼년상까지 다 모시고 사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의친왕비께서는 친정 조카 며느리가 되시는데, 사실은 그 모시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정이 있으시고 자녀들도 키우고 그러시는데, 그런 위치에서 어느 날 의친왕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하실 테니까 언니(정환희 여사) 한말씀 하시지요. 어떻게 모시게 되었는지. 어느 날 부르셨다고. 그것부터

정환희 여사: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사는데, 당신 심복이 없잖아요. 자식도 없고, 갑자기 “들어와 살아라 궁으로” 그러셔요.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궁이 어떤 텐데, 그래도 어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집은 문을 닫아서 아래층에다 사람을 맡겨놓고 애를 데리고 이제 살림을 다 끌고, 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지만 호위병이야, 호위병. 다 모두 밤에 씻으시니까 의지가 안 되어서.

배선영 수녀: 원래 상궁은 아니셨죠?

김종순 교수: 아니시죠, 상궁들이 하나씩 둘씩 연로하고 그래서.

정환희 여사: 상궁이 많죠. 각각 분야에, 지밀상궁¹⁸⁵⁾ 따로 있고 주방에도 따로 있고, 침소. 다 많은데, 당신 자손이 없으시니까, 이럴테면 수양딸같이 의지하시려고 불러들이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궁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방이 다 후궁들이 있으니까, 좋은 소리는 안 들어가거든. 근데 마마께서 이제 치다꺼리만 하시지, 당신 식구가 없으시니까, 불러들이신 거지 뭐, 그래서 끝까지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3년까지, 삼년상까지 다 하고 이제 내가 나왔죠.

이구섭 선생: 그때 들어가신 지가 몇 년도….

정환희 여사: 들어간 지가, 제가 40년에 결혼을 했는데, 42년도쯤 들어갔어요.

배선영 수녀: 굉장히 오래되시네요.

정환희 여사: 42년에 사동궁¹⁸⁶⁾으로 들어갔어요. 그땐 사동궁에 계셨으니까, 6·25 때 피란이 있었잖아요. 피란. 그때 피란을 갔다 왔다 하면서 해방 후에.

배선영 수녀: 선생님 잠깐만 저게 <녹화가 잘 되는지 확인>

김종순 교수: 되고 있어요?

배선영 수녀: 네, 되고 있어요.

김종순 교수: 아니 잠깐 목 좀 축이시면서 괜찮으세요?

정환희 여사: 해방 후에 사동궁에서 나왔잖아요.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금곡으로 가셨어요. 금곡으로 재실로, 거기에 계시다가 적적하시니까 저리 가셨어요. 또 낙선재에서 윤 비께서 “칠궁으로 가시라”, 그래서 칠궁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내가 칠궁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별궁으로 가셨는데 별궁에 또 한 데(차가운

185) 지밀(至密)상궁 : 대령상궁(待令尙宮)을 뜻하며 대전(大殿) 좌우에 시위(侍衛)하여 잡시도 떠나지 않고 모시는 상궁이다. 상궁은 조선시대 정오품(正五品) 내명부(內命婦) 궁관(宮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186) 사동궁(寺洞宮)은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6번지 일대에 있었던 대한제국 고종의 둘째 황자이자 황족 독립운동가 의친왕 이강의 궁궐이자 의왕부(義王府)이다.

곳)니까 수위도 없고, 몇 명만 데리고 가셨으니깐, 또 별궁으로 들어간 게, 내 살다가 마음으로 또 불편하죠. 왜 그러냐 하면 다 사서(사사로이) 얘기를 못 하는데, 자손들하고 맞지 않아요.

김종순 교수: 고생이 많으셨지요.

정환희 여사: 넷째가 아주 뭐 (...) 산을 팔아먹었어 몰래, 그래서 거기서 피해가신 게, 저기 가셨어요. 화양리. 화양리가 어디냐 하면 묘소. 네 전하 어머니, 건공 어머니, 또 거기 사시는데 넷째가 또 산을 팔았어요.

정환희 여사: 거기서 이제 고생,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장면 씨가 부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장면 박사가 전하 대부¹⁸⁷⁾서.

배선영 수녀: 네, 그 얘기 들었는데, 의친왕 세례 문서에서는 이 미카엘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교리는 장면 박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영세받을 때는 옆에 안 계셨던가 봐요. 그렇죠?

정환희 여사: 그렇죠. 총리시니까

배선영 수녀: 네 맞습니다.

정환희 여사: 근데 그 부인은 माम을 찾아뵈러 댕기고, 총리가 다 그냥 인사를 오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 살 거처를 좀 해달라”고. “알았습니다”하고, 그러고선 가서, 이제 비서를 보내기 시작하고, 부인, 총리 부인을 माम께로 직접 보내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시고) 별궁에 있는데, 그때부터 심부름을, माम께서는 나한테 시키시는 거지,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힘드니까 아 저 저 해봐. 그래서 (...) 집이 없대요, 빈집이. 지금은 칠궁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육상궁이에요. 뭐가 영친¹⁸⁸⁾ 어머니가 들어가면서부터 칠궁이 됐지. 근데 당신 아들이 왕이 되고, 후궁이 난 소생, 군을 모시는 데가 육상궁이래,

187)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증인 격인 신앙의 아버지를 칭하는 말: 대부(代父)

188) 영친왕 이은(李垠, 1897.10.20.~1970.05.01.), 호는 명휘(明暉), 고종의 일곱째 아들(출생순으로), 생존한 아들로는 셋째 아들이다. 생모는 귀비 엄씨(貴妃嚴氏)이다.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되고 그해 일본에 인질로 잡혀가 1920년 4월 일본 왕족 출신 마사코(이방자)와 정략결혼한다. 1926년 순종이 죽자 형식상으로 왕위계승자가 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63년 11월 국적을 한국으로 회복하고 이방자 여사와 함께 귀국한다. 자녀 이진(1921~1922), 이구(李玖, 1931~2005).

정부인이 낳으신 분은 종묘로 모시는데, 후궁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리 모셨대요. 그래서 총리 부인한테 땡기면서 사정 얘기를 다 하는데, 육상궁은 (수리틀) 안 쓰던 집이니까 재실만 있지, 주방이 없어요. 주방을 문화재관리국에서 다시 잘 짓는데 그걸 하려면 이수길 씨를 국장을 시켜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수길¹⁸⁹⁾ 씨를 국장으로 장면 씨가 임명하고 수리틀 잘해서 모시고 들어가게 됐죠.

김종순 교수: 이수길 씨가?

정환희 여사: 다섯째, 다섯째예요. 그게 뭐냐하면 수인당 아들이야 수인당.

김종순 교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하신 게 원유관이 어떻게 그리로 전해졌는가죠? 원유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전쟁이 나자 누가 어떤 연유로 그게 수녀원으로. 운현궁에서 그 얘기 하셨었죠. 그 얘기.

정환희 여사: 6·25 때 터졌는데 우리 몰랐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낙선재로 쳐들어갔나 봐 인민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인민군이. 그러니까 낙선재에서 운현으로 연락이 간 모양이에요. 운현궁에 이 우공비가 살았어요. 이 우공비, 박찬주 여사.

김종순 교수: 박찬주가 가톨릭에서는 조금, 가회동 성당하고 연결이 깊어가지고요. 그런 연고로 가회동 성당에서¹⁹⁰⁾

배선영 수녀: 네, 가회동 성당에서 (의왕비께서) 영세받으셨어요.

김종순 교수: 영세받으셨어요.

배선영 수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왕비께 영세를 권유...

김종순 교수: 바로 운현궁에 안주인이신 우공비가, 박찬주 여사가 사람을 보내서 피하시라고 그랬대요.

<비공개 전환>

배선영 수녀: 근데 의왕께서 먼저 이렇게 영세를 받으셨잖아요?

정환희 여사: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माम께서 받으시고 전하께서 받으

189) 의친왕의 5남 이주(1918.2.23~1982.12.10), 아명은 이수길, 1961년 1월부터 7월까지 구황실재산사무총국 국장직을 역임했다. “李壽吉氏(이수길씨) 任命(임명)” <경향신문> 1961년 1월 14일.

190) 본 필자는 이 증언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결과 박찬주 여사는 서울대교구 세종로성당에서 1953년 12월 20일에 ‘세레나’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녀의 두 자녀(이청, 이종)도 같은 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이청(로렌조)은 가회동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셨어요.

배선영 수녀: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영세 문서에는 의왕이 먼저 받으셨죠.

이구섭 선생: 예 의왕이 먼저 받았죠. 세례 문서에는

(김종옥 여사가 전화를 받고 자리로 돌아와서 정환희 여사와 자리를 옮겨 앉음)

김종순 교수: 8월 9일에 그분이 영세받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배선영 수녀: 대세

김종순 교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미 굉장히 회복은 불가능하다 했을 때 평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배선영 수녀: 장면 박사님.

김종순 교수: 네, 그분들이 오셔서(세례를 받도록 하고), 해서 문서상으로는. 그래도 기독교가 전수되고 그런 거는.

배선영 수녀: 의왕비

김종순 교수: 의왕비 어머니가 먼저이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배선영 수녀: 그러면 선생님은 신자세요? (정환희 여사를 가리키며)

김종순 교수: (정환희를 가리키며)아니세요. (자신을 가리키며)아니요.

배선영 수녀: 네, 신자 아니시고

김종순 교수: 김종옥 씨인데 신자이시고.

배선영 수녀: 네, 어디서 뵈는 것 같아요.

김종순 교수: 아마도 의친왕비와 많이 닮으셔서

김종옥 여사: 나는 바로 조카 딸이니까.

배선영 수녀: 그래서 너무 닮으시고, 선생님도(김종순 교수) 많이 닮으셨어요.

김종옥 여사: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김종순 교수: 그래서 저기 이 원유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아까 언니한테서 듣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 우공비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피하셔야겠습니다”할 때, 그때까지는 이런 물건이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르셨었대요. 언니가 말씀하세요.

정환희 여사: 그래서 사태가 위험하니까 피란하시라고. 짐을 싸는데 माम께서 그러세요. 무슨 께짝이에요 이거, “너도 피해라”,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우선 벌써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따 이걸

어디다 치우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까워요. 별궁하고 절이라는 데가, 가까운데 “우선 그리 피해라”

김종순 교수: 그래서 선학원이라는 절에 일단 피해 놓으셨답니다.

정환희 여사: 선학원¹⁹¹⁾

김종욱 여사: 선학원, 거기가 절이에요. 안국동에 있는.

정환희 여사: (...) 애들 공부하는데요. 그래 우선 그리 피했는데, 그리고 몸은... 인민군까지 다 와서, 상궁들 다 해방시키고, 하인들 다 해방시키고, 노인이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가라는 거예요. 인민군이 와서 나가라니까. 그리고는 아무것도, 머릿도 당신이 손수 못 하세요, 다 내가 해드리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나 좀 어떻게 데리고 나가라” 그랬는데, 애가 4남매예요. 애 넷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저런 분을 모시고 어디로 나가요? 그러고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리어커 하나를 구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걸음을 못 하시니까, 우선 급한 것만, 당장 먹을 거 당장 입을 거, 딱 총 갖다 대고 못 가져가게 해요. 간장, 된장. 당장 갈아입을 의대, 여름이니까 홰이불 하나, 또 나 역시 조금 필요한 거 가지고 나가고 내쫓겠죠. 그리고 저분하고 사는데, 또 뭐 수복이 돼서 다시 되찾아서 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짝도 없고 뭐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수리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사는데 4일쯤 되던 날 또 그러세요. 그래, 또 올라갔는데, 이리이러해서 가져간 거 가져오라고. 가져가와 보니 퀘짜이야, 뭐. 그리고 보기엔 별거 아니예요. 근데 마마께서 소중한 거예요. 그전에.

배선영 수녀: 그 사진 보여드릴까요?

김종순 교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배선영 수녀와 이구섭선생이 준비해온 파일을 찾는 내용=> 13:56~15:03)

배선영 수녀: (정환희 여사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런 퀘짜에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김종순 교수: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언니?

정환희 여사: 글썩 그건 기억을 못하고, 퀘짜만 기억이 나지

191) 현주소: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 안국동 40

배선영 수녀: 그러니까 아마 께짝은 다르게 했는지도 모르죠
정환희 여사: 그런데 이런 께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쇠뿔(자물쇠)를 잠그는
걸 열잖아요. 그 속에 또 있어요.
배선영 수녀: 이게 임금님이 쓰셨던 이게 원유관. 못 보셨어요?
정환희 여사: 근데 이게 속에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감히 어려워
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른이 하시는 거 그런 거 못 해요.
그래 갔다가 또 “광에 갔다 뒤라” 그래서 광에 갔다 뵈어요.
수복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계시다가 종교를 이제 바꾸시잖
아요. 천주교로. 근데 그 옆에 사는 양반이 (가회동 교회) 가
시게 되고, 그때는 걸음도 걸으실 때니까, 대모라고 또 계시고
배선영 수녀: 이 (누갈다)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정환희 여사: 전교 회장은 있는데, 전교 회장 모르죠? (김종옥 여사를 향해
물어보심)
김종옥 여사: 전교 회장 성을 모르는데,
배선영 수녀: 네, 영세를 받으셨더라고요. 우슬라.
김종옥 여사: 전교 회장이 (...그 어머니...) 대모를 서시고.¹⁹²⁾
배선영 수녀: 그러니까 그 계장이라는 분이. 문화재관리국장
정환희 여사: 말하자면 문화재관리국장이야, 관리국장 어머니가 대모를 서시고
배선영 수녀: 문화재관리국장이 의왕비께 다니셨다고, 그분이 이 누갈다, 아
니 이 우슬라.
김종순 교수: 우슬라?
배선영 수녀: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어른
들께서(직접 기증받은 수녀님들) 문화재 쪽에 계시는 분이 이
렇게 의왕비하고 별궁을 드나드시면서 우리 집에 기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정환희 여사: 그래서 전교가 뵈어요.
김종옥 여사: 우리가 세례명은 모르죠.
배선영 수녀: 이분을 통해서 전교를 많이 하게 되었다고. 이분은 상궁이 아
니셨나요?
정환희 여사: 아니죠. 외부에서 살다가 그 아들이 문화재 관리 직원이니까

19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외부회 지원서 NO.2」문서를 보면 이복흥에 대한 간략한 인적 사항이 적혀있다. 이복흥은 천주교 가회동 성당 부인회에서 전교의 활약을 했고 전교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35년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순교복자수녀회와는 1947년부터 인연이 있다.

6.25 후에 폭격을 맞아 집이 없으니까, 이제 별궁으로 들어오게 됐죠. 와 살면서 마마께 전교해서 마마께서 들으시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이를 대모로 세우시고 또 견진 대모 따로 있고, 가회동 진 신부님¹⁹³)한테 영세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좀 편안해졌죠 세상이. 그러니까 광에 감춰놓은 거를 어느 날 수녀님 한 분을 “너, 나 수양딸 해라” 자손이 없으시니까

배선영 수녀: 수녀님 한 분한테, 딱 여기 답이 나오네요.

정환희 여사: (너, 나 수양딸 해라) 그래서 가까이 땡겨서, 자주 땡기고 그랬어요.

배선영 수녀: 그분 어느 수녀님인지 기억하세요?

김종옥 여사: 막달레나 아니야?

정환희 여사: 아니야. 저기 이름은 모르는데 명동성당에 있었던 것 같은데

김종옥 여사: 아니 막달레나가 자주 드나들었는데

정환희 여사: 막달레나는 그냥 교우로 땡겼고 그이는 이계(말) 썬서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암전하시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는 청파동에 수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선영 수녀: 네 맞아요.

김종옥 여사: 복자 수녀원.

정환희 여사: 복자 수녀원 그렇죠?

배선영 수녀: 네, 네

정환희 여사: 지금은 부산이라구, 청파동에 복자수녀원이 있었어요.

김종옥 여사: 지금도 있다구.

정환희 여사: 어떤 한 분인데, 참 자주 다니시고

배선영 수녀: 흥 수녀님, 흥 수녀님이세요. 라우렌시오 수녀님, 우리 뿌로마 델 같아요. 그분이 자주 드나드시면서 네, 네 맞아요. 우리 돌아가신 분, 흥 라우렌시오 수녀님

김종옥 여사: 돌아가셨을 거라고

배선영 수녀: 네, 청파동을 기억하시는 것 같네요.

정환희 여사: 그래서 수양딸 삼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광에 가서 그걸 꺼내오라고 그러세요. (피란 갔다가 ...) 그래서 꺼내다 드렸죠. (...보여주시면서) “무덤 것까지 가져가거라” (...)

193) 진성만 베드로 신부(1915.08.27.~2008.08.02.) 예수회 소속 사제, 1949년 7월 24일 사제서품, 일본선교 후 1955년 6월 20일 귀국, 1962~1969 서강대학교 3~4대 이사장 역임.

근데 당신이 자손을 못 낳았어도 큰아들을 당신 아들의 호적으로 올리셨는데, 그이가 일본한테 끌려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해방이 되니까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 그 사람 나올 때만 기다리시는데, 못 나오고 뭐 세상을 뺐느니, 이별을 당했느니, 그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실망을 하셔서, 종교도 바꾸시고. 그런데 꺾을 주시면서 이렇게 열어보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대단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잠깐 “이거 절대 비밀이다” 왜 그러냐면 후궁서부터 자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이제 천주교로 갔어요 모두. 너나 할 거 없이, 계동집이고 뭐고 다 천주교거든. 그니깐 혹시라도 그거 받았다는 소문날까 봐 무덤까지 가져가라. 또 나는 운반한 죄로 “너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너도 무덤까지 가져가거라” 그래서 여태까지 참, 극비로 내려온 거죠. 근데 요새 이런 소리가 나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오래. 뭐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알게 됐다. 궁금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 하나,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나?

김종옥 여사: 무서워서 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배선영 수녀: 무덤까지 가져가라 해서

이구섭 선생: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말씀이 비밀을 지켜라. 이 말씀이었군요.

김종순 교수: 아니 이거를 어떻게 언니가 아시는 걸 알게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 화자, 이화자, 그리고 숙경이 그들이 아마 사진¹⁹⁴에 있었던 사람들일 거다. 이해경¹⁹⁵ 씨하고 통화했는데 그들하고 연락을 해보라. 자기는 도미 후의 일이라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 저도 그때 63년에 도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모르지요. 혹시 우리 김종옥 언니께서 아시겠는가 해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 다녀온 얘기며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다음 날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올케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다

194) 의친왕비의 세례 사진 속 학생 두 명(의친왕의 6녀인 이희자, 손녀 이숙경).

195) 의친왕의 다섯째 왕녀.

아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연락드렸었죠.

배선영 수녀: 너무도 진짜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정환희 여사: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손들은 하나도 몰라요.

<비공개 전환>

배선영 수녀: **이 모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네,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환희 여사: 어느 날 부르셔서 내려갔더니, “이래이래 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열어보면 이런 퀘짜이 있을 것이다. 그걸 내오너라” 그래서 내왔어요. 그랬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속에 또 퀘짜이 있어요. 그걸 또 여니까, 처음 보는 일이라. 뭐 이상한 모자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왜 열어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당신 수양딸 아무개 수녀님한테 이거를 전하시면서, “전하가 쓰시던 거고, 전하가 입으시던 의대니까, 이거는 아무도 (전하...) 맡아드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수녀님이 영구 보존해라, 그 대신 출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거라”

배선영 수녀: 비밀로 하라고, 그러니까 수양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환희 여사: 모르죠 뭐. 딸은 어떤 분인가 하면 수녀님이라는 거 뭐밖에 몰라요.

배선영 수녀: 어디 사셨어요?

김종옥 여사: 복자, 복자 수녀님

정환희 여사: 청과동, 제가 아는 거 그거야, 청과동 복자수녀원이라고, 그 이상도 아는 게 없죠.

배선영 수녀: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구섭 선생: **이희자입니까? 이화자입니까?**

김종옥 여사: 희자예요.

배선영 수녀: **기억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김종옥 여사: (의친왕비 세례 사진을 보며) 애가 희자¹⁹⁶⁾고 애는 숙경¹⁹⁷⁾이

배선영 수녀: 딱 맞네요.

김종옥 여사: 딸의 딸이니까(이숙경)

이구섭 선생: 예 전하 딸, 여섯째 따님이시더라고요. 여섯째 따님이신데, 이

196) 의친왕의 여섯째 왕녀 이장(1940.5.13.~2022.8.11.), 호적 명은 이희자.

197) 이숙경은 의친왕의 넷째 왕녀 이숙의 딸, 이숙의 호적 명은 이해숙(1920.4.18.~1991), 계동궁 입적.

따님께서 1978년도에 우리 수녀원에 오셔가지고 이 모자하고 옷들을 전부 한번 보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 따님이 그 사실을.

정환희 여사: 몰랐지.

이구섭 선생: **모르는데 어떻게 와서 보시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을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김종순 교수: 아마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73년에 귀국했는데, 그때 경향신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의친왕비에 관한 기사가 나면서 그분이 그 수녀님, 수녀원, 복자수녀원에 그런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신문 기사를) 오려서 간직했었고, 그때는 요새 뭐 KTX 이런 거 하고 달리, 부산 가는 것도 큰마음을 먹어야 하고, 더군다나 복자수녀원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늘 이렇게 마음대로만 베풀고 있었거든요. 이회자, 그 사람도 그런 연유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녀도 많으시고 또 부인도 여럿이니까 그 사이에서는 물건이나 이런 거에 관한 관심 내지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갈등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어떤 게 다 어디로 전해지고 이런 거에 굉장한 관심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말씀을...

<비공개 전환>

배선영 수녀: **네 그럼 의친왕비께서도 신자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정환희 여사: 그럼요.

배선영 수녀: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해주시면?**

정환희 여사: 영세 받으신 다음에는. 월요일날이면 아침마다 저 진신부님이 교우 몇 분하고 영성체 못 가시니까 영성체 모시고 오시고요. 또 사후에도 살아생전은 생미사고 사후에는 연미사.

김종옥 여사: 네 연미사는 복자수녀원에서 해요.

정환희 여사: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시더라고

배선영 수녀: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정환희 여사: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 따로 내가 나가고

우리 집으로 가고도 일요일날 와서 다 청소해야 돼요. 오실 테니까, 청소하고 차라도 준비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딱 3년 살고 나니까 끝나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고 끝난 거지.

김종옥 여사: 근데 청과동 복자수녀원에서 연미사 드려

배선영 수녀: 네네 지금도 계속 드려요.

김종옥 여사: 근데 나는 나대로 또 내가 여기서 드려요.

정환희 여사: 혈육간이니까 개인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쓴다해서 3년 동안 거기서 교회에서 꼭 땡기셨어요.

배선영 수녀: 그러면 저희들 수녀원에 아마 그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김종옥 여사: 매주 월요일날

배선영 수녀: 그거 하면 이제 연미사 생미사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찾아보면 의왕비 성함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환희 여사: 그리고 경길(198)가 그렇게 고생한다고 진신부님 밑에다가 데려가서(199), 거기서 살다가 세상 떠났어요.

이구섭 선생: 누가요?

정환희 여사: 전하 아드님이 경길이라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이.

김종옥 여사: 경길이 여덟째.

<비공개 진환>

이구섭 선생: **이수길, 이분에 대해서 조금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정환희 여사: 아니, 나중에 마마 모시게 될 적에 장면 박사가 문화재관리국장을 시켜야 마마를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이가 이왕가 대표로, 또 승인을 받아야 영친왕을 모셔내고 덕혜옹주를 모셔내고, 박 대통령 적에 한다고, 이왕가 대표로 도장을 찍어달라고(200) 그러는데, 낙선재가 위고 그다음에 사동마마시거든요.

김종순 교수: 사동마마는 의친왕비.

198) 의친왕의 8남 이현(1923.3.30~1996.2.17). 아명은 이경길, 독신, 가족이 없이 경로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평화의 모후원' 양로원에서 생활하다 사망. <경향신문> 1996년 2월 21일 22면; <동아일보> 1996년 2월 21일 31면; <조선일보> 1996년 2월 21일 31면; <한겨레> 1996년 2월 21일 23면.

199) "...진 베드로 신부(81)의 주선으로 90년 8월 천주교 경로수녀회가 운영하는 이 양로원으로 옮겨졌다." <동아일보> 1996년 2월 21일 31면.

200) "忘却의 옛 皇族 李王家" <조선일보> 1961년 8월 11일 2면.

정환희 여사: 근데 낙선재에서 반대를 하세요. 수길이를 싫어하셔. 왜 그러냐면 후궁의 아들이라고, 수인당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낙선재에서 반대를 하시고 이철주²⁰¹⁾라고 있었어요. 왕가 대표에.

김중순 교수: 사촌 오라버니, 이철주 연대 교수

정환희 여사: 연대 교수. 근데 철주를 왕가 대표로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시는데, 어떡해요. 그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수길이는 저 해달라고 그러고, 낙선재에서는 철주를 해서 도장 딱 찍어서 보내셨고, 어떡하면 좋아요. 그때도 정신이 있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안 된다 총 맞아 죽어도 대비 마마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찍어라, 반대”, 이수길이 반대하고 철주를 왕가 대표로 도장을 찍어주었죠.²⁰²⁾

<비공개 전환>

이구섭 선생: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결국은 이렇게 증언을 해 주시는 게 너무나 소중한 증언이시고 그리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보면 왕비님의 뜻을 오늘 이어가는 그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아주 순수한 뜻으로 보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 동영상한 거를 뭐 틀림이 없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증언들이 강요에 의해 허위로 이렇게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하는 데서 공증인이 같이 자리하면 그건 명확해지는데, 당장 하루 전에, 또 토요일이고 하니깐 그게 힘드니까 정리한 내용을 잘, 핵심을 정리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되, 문화재청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걸 제일 객관화하는 방법은 기사화하는 게 제일 객관적인 객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선영 수녀: 기자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구섭 선생: 그때 저희가 동행을, 수녀님이 오시든지 누가 동행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아니고 간단하게 증언을 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201) 이철주(1922.12.15.~1988.8.2) 독립운동가, 물리학자, 연세대학교 교수, 증조부 완순군 이재완이 흥완군의 양자로 입적, 족보상 왕실과 가까운 친척이 됨. (원래 선조의 9남 경창군의 13대손)

202) 이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다음이 참조된다. “斜陽의 軛轡?” <조선일보> 1964년 11월 10일 7면; “병든 王家의 軛轡” <경향신문> 1964년 11월 13일 3면; “구 왕가에 묘한 바람” <경향신문> 1964년 11월 10일 3면.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종순 교수: 미리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그걸 갖다가 다 정리해서 편집하시고 그런 다음에 한 번 공증받는 것보다는 뉴욕에 계신 이해경 왕녀한테 보내서 그분이 자기가 자랄 때 사실은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늘 같이 지내셨거든요.²⁰³⁾ 이 언니가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받으십시오. 그게 더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게 더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니?

배선영 수녀: 같이 사셨으니까,

김종순 교수: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니의 위치를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장 같은 분, 비서. 그러니까는 언제나 그 밑에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궁핍하고 그랬을 때는 뭐 한두 사람에 불과했지만 우리 고모님께서서는 혼자서 머리도 못 빗으셨어요. 그러니까 늘 딸린 사람들이 있고, 총지휘하신 분이 언니시니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배선영 수녀: 그게 더 좋네요. 네 아주 굉장하.

김종순 교수: 그리고 이해경 씨는 우리 의친왕비께서 친히 키우신 분이예요. 아까 이 원유관에 대한 얘기는 알지를 못 하지만, 언니가 어떤 분인 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정환희 여사: 그이가 세 살부터 와 있었는데, 세 살부터.

김종순 교수: 이해경 씨가 30년생인가.

김종욱 여사: 아주머니 딸로 돼 있대요.

정환희 여사: 그럼.

배선영 수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공개 전환>

< 56:00~1:05:05 사진과 신문보며, 자료 정리하며 대화하고, 앨범 정리하며 다른 대화가 겹침(소리가 겹침), 인적사항 적으며 움직임>
끝.

203) 이해경,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 유아북스, 2023, 19~22쪽 참고.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ivities and Religious
Heritage-Making by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 Focusing on the Relics of the Consort of Imperial Prince
Uichin of the Korean Empire

Yu Sang Soon

Graduate School of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d Histor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royal artifacts donated by Kim Deok-su, Consort of Prince Imperial Ui of the Korean Empire, to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transcended their value as mere historical objects and were transformed into religious heritage imbued with spiritual significance. Unlike existing studies on religious cultural heritage that have primarily focused on institutional preservation and physical managemen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how these artifacts were imbued with meaning and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s identity through the religious practic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Catholic women's religious order,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This study particularly emphasizes how th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the Consort of Prince Imperial Ui's artifacts extend beyond conventional museum activities to align with the order's unique mission—honoring martyrs and preserving national culture. To trac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onation in the absence of official documentation, this research relies on the oral testimony of Ms. Jeong Hwan-hee, who spent the later years of the princess consort's life with her, as a key primary source. Additional sources, such as internal documents of the order, memoirs, museum records, and newspaper articles, are used for cross-verification. Based on these materials, the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otives behind the donation, the process of reception, and exhibition practices, illustrating how cultural heritage becomes intertwined with religious memory within the monastic community.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artifacts of the Consort of Prince Imperial Ui are reinterpreted by the Sisters not merely as historical relics but as symbols of faith and communal spirit. Through exhibition and educational efforts, they have undergone a public transformation into religious cultural heritage. This process simultaneously reinforces the religious nature of the heritage through the order's faith-based interpretations and practices, while highlighting the cultural contributions and social roles of Catholic women's religious orders in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underscores the active role and interpretive authority of religious institutions i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 contributing to scholarly discourse on the spiritu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hat women's monastic communities can undertake as agents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